

高麗時代의 典籍

千 惠 鳳

(성균관대학교 교수)

〈目 次〉

- | | |
|---------------------|--------|
| 1. 序 論 | 6. 寺刹板 |
| 2. 高麗初期 刊行의 寶篋印陀羅尼經 | 7. 官 板 |
| 3. 初彫大藏經 | 8. 私家板 |
| 4. 續 藏 經 | 9. 結 論 |
| 5. 再彫大藏經 | |

I. 序 論

文化 藝術의 전파와 발달은 주로 典籍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典籍은 손으로 筆寫한 것이 최초로 발생 보급되어 오다 新羅時代에 彫板印刷術이 싹트자 刊行의 形態로 서서히 옹아 갔으며, 그에 따라 文化 藝術의 전파도 또한 점차로 그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그토록 典籍을 일찍이 신라시대에 刊行하여 文化 藝術의 전파와 발전에 기여한 것은 특히 佛敎의 눈부신 興隆이 큰 原動力이었다.

그 佛敎가 高麗期로 들어와 國家的 宗教로 昇格되니 그 發展策은 더욱 강구되었다. 京外各地에 寺刹이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져 宗派가 퍼져나갔고 國民의 信仰度가 날로 높아져 갔다. 따라서 자연히 佛敎典籍의 刊行이 寺刹에서 活氣를 띠었으며, 이러한 寺刹板의 주도는 國刊板藏經과 官板은 물론 私家板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기서는 이들 高麗의 典籍板本이 文化와 藝術의 발전에 어떻게 寄與하였는가의 視角에서 그 發達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II. 高麗初期 刊行의 寶篋印陀羅尼經

고려초기의 彫板印刷는 寺刹板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國初이후 잇단 外侵 그리고 內亂에 의한 焦土의 亂禍를 겪는 사이에 이들 典籍이 燒失되고 탕진되어 버렸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도 穆宗 10년(1007) 摠持寺主持인 弘哲이 刊行하여 佛塔 靑속히

奉納供養했던 寶篋印陀羅尼經이 2部 전래되고 있다.¹⁾ 그중 1部는 國內의 고 金完燮藏本이고, 다른 하나는 日帝時代 日本人의 수증으로 들어가 현재 東京博物館에 기탁되고 있는 藏本이다.²⁾ 그 卷頭에는 “高麗國攄持寺主眞念廣濟大師釋弘哲敬造寶篋印經板印施普安佛塔中供養時 統和二十五年丁未歲(穆宗10, 1007)記”의 刊記가 표시되고 있다. 그 刊記로 미루어 보건대, 一切如來의 全身 舍利의 功德을 積聚한 陀羅尼經을 板刻印出하여 納塔供養하기 위함임은 물론이나, 한편으로는 陀羅尼 또는 攄持의 秘法으로 信仰界의 매력을 끌었던 攄持宗의 本山에서 住持가 刊行하여 普施하였으니 宗旨를 드날리고자 함에 있었음도 능히 간파할 수 있다.

이 經은 舍利盒에 넣어 佛塔에 奉納하거나 佛腹에 奉安하여 供養하기 위해 刊行한 小形木板 卷子本인 것이 그 특징이다. 紙幅 7.8cm, 上下單邊의 板匡 5.4cm의 사이에 먼저 刊記가 5行에 걸쳐 새겨지고 잇달아 10cm 폭의 變相圖가 陽刻되어 開卷劈頭를 장엄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이어 本文이 無界로 每行 9字에서 10字가 配字되어 卷末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全長은 240cm이다. 글자의 크기에 있어서 字高는 一定치 않고 字徑은 0.5cm에서 0.7cm를 드나들고 있는 작은 글자이다. 卷紙는 黃色으로 자못 古樸하다. 종이가 오래되면 누렇게 퇴색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본시 黃蘗으로 물들인 종이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全卷紙중 中間에 위치한 紙幅 전체가 이어 붙인 앞뒤의 종이에 비하여 그 농박도의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권 끝 木心軸의 양쪽 露出部는 朱色 위에 옷칠을 한 栴檀木을 사용하였다.³⁾

本文의 字體는 唐初寫經의 書法을 韓半島에서 발전시켰던 新羅의 寫經體와 共通한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신라 景德王 14년(755)의 白紙墨寫經인 周本 華嚴經 殘存 2軸의 寫經體와 對查하여 보면 그 書法이 아주 비슷하며,⁴⁾ 佛國寺釋迦塔에서 나온 景德王 10년(751)頃 刊行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그것과도 共通한다.⁵⁾ 그중 후자의 木板卷子本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字體에 六朝風의 古拙遒勁性을 느끼게 하는 한편,⁶⁾ 寶篋印陀羅尼經은 板刻術에 纖細精巧한 發展性을 보여 주는 점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이 寶篋印陀羅尼經의 글자체는 羅代寫經體의 書法을 承襲하여 歐體의 굳센 方筆을 골격으로 삼고 거기에 유려한 圓筆을 곁들였음이 서로 비슷한 점이나, 六朝體의 風이 나지않는 점에서 亞流에 속한다.⁷⁾ 그렇지만 板刻術은 그보다 월등하여 발전된 면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음이 그 특색이다. 더욱이 이 寶篋印陀羅尼經이 지닌 一大特徵으로서 開卷 벽두를 장식하는 變相圖가 비록 소박하고 조그만 하지만 최초로 등장한 版畫로 손꼽혀지는 점에 있다.(圖 1) 그 版畫는 本經 內容의 골격을 요약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1) 千惠鳳, 高麗初期 刊行의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中央大學校圖書館學報 2輯. 서울 : 1973. pp. 1~47.

2) 千惠鳳, 新羅·高麗의 書跡·典籍, 韓國美術 2. 東京 : 講談社. 1987. pp. 113, 268~273, 319~320.

3) 高麗史 卷第 93 列傳卷第 6 崔承老齊顏條.

4) ① 千惠鳳, 書藝·典籍, 國寶 12. 서울 : 藝耕産業社, 1985. pp. 57~58, 206~207, 253.

②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14輯. pp. 27~64.

5) 任昌淳, 韓國의 金石과 書藝, 白山學報 3號(1967) pp. 246~244.

6)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號(1968) pp. 188~189.

7)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 景仁文化社, 1978. pp. 38~41.

視覺的인 면에서 그 윤곽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림중 오른 쪽 下端에는 釋迦世尊이 왼쪽에 보이는 無垢妙光의 婆羅門家로 供養次 菩薩 聲聞등의 大衆에 의해 안내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오른 쪽 上端에 보이는 窠塔波는 世尊이 婆羅門家에 이르기 직전 豐財園에 도달하여 寶篋印摠持를 口誦하고 설명할때 園中의 폐허화된 古朽의 塔所에서 들연 나타난 七寶塔이다. 基壇部의 蓮花臺 위에 타원형의 塔身이 安置되어 있고 그 위에 左右 한 쌍의 鈴鐸이 달려 있는 傘蓋(屋蓋)가 덮여져 있으며, 그 頂部에는 相輪이 押鑲되어 있다. 그리고 窠塔波의 주위에는 10여개의 花紋이 點飾되어 있고 前面 중앙 아래 부분에는 祥雲중에서 一大光明이 번쩍이며 슬도파의 周圍를 放照하고 있다.

이 그림은 비록 素朴하고 淡泊하지만, 우리나라의 木板印刷物에 나타나는 版畫로서는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인 점에서 美術史上 크게 평가된다.⁸⁾

이 寶篋印陀羅尼經은 중국에서 大曆7년(772) 不空이 漢譯하여 入藏시킨⁹⁾ 뒤, 五代 때 吳越國王錢弘俶(948~978)이 두번 刊行하여 納塔供養하였다.¹⁰⁾ 첫번째의 것은 國王이 印度 阿育王의 造塔事蹟을 본받아 金·銅·鐵로 小塔 8萬4千을 鑄成하고 顯德 3年(956)에 寶篋印陀羅尼經을 刊行하여 그 塔속에 奉安한 다음 部內에 널리 頒布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天下都元帥吳越國王錢弘俶印寶篋印經八萬四千卷在寶塔內供養 顯德三年 丙辰歲(956)記”가 표시되어 있다.¹¹⁾ 두번째의 것은 開寶 8년(975)에 杭州 西湖附近에 雷峰塔을 세우고 塼의 하나하나에 8만 4천권을 刊行하여 奉安한 것에 해당하며, 이에 “天下兵馬大元帥吳越國王錢俶造此經八萬四千卷 捨入西關塼塔永充供養 乙亥(開寶 8, 975)八月日紀”의 刊記가 새겨지고 있다.¹²⁾

寶篋印陀羅尼經이 中國에서 언제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羅末麗初에 우리나라는 吳越國과 주로 文化交流가 이루어졌으니,¹³⁾이 무렵에 이 經을 刊行하여 納塔하는 供養佛事가 도입되어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翻刻受容이 아니라 供養佛事만을 영향받고 板刻은 獨自의로 바탕 책을 淨書한 다음 精刻해냈기 때문에 板本의 體裁가 다르고 本文에 誤字와 脫字가 별로 없으며, 變相圖의 構圖도 보다 實感이 난다. 板刻이 또한 精巧하고 墨光이 鮮明하여 印刷狀態가 매우 우아하며 아름답다.

요컨대, 이 寶篋印陀羅尼經은 우리 祖上의 손으로 板刻用의 바탕책을 새로 써서 정성껏 새겨낸 高麗初期의 獨自의 板本으로서 이보다 앞서 刊行한 吳越板보다 월등하게 優雅精巧한 바, 當時의 書藝와 版畫 그리고 彫板術의 優秀性에 자못 刮目케 한다.¹⁴⁾

8) Hye-Bong Chon, Dharani-Sutra of Early Koryo, Korea Journal v. 12 No. 6(1972) pp.4~12.

9) 圓照, 大唐貞元續開元釋教錄 卷上, 高麗大藏經 第38.

10) ① 志磐, 佛祖統紀 卷第 10 吳越忠懿王 錢弘俶條.

② 常盤大定, 支那佛教史蹟踏查記. 東京:龍吟社, 昭和 13(1938) pp.193~212.

11) ①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 p.48.

② 小野玄妙, 佛教之美術及歷史. 東京:佛書研究會, 大正 6(1917) pp.616~623.

12) ① 張秀民, 前揭書 p.48.

② 常盤大定, 前揭書 p.453(v. 2) 및 p.146(v. 3).

13) ① 一然,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前後所將舍利條.

② 志磐, 佛祖統紀 卷第 10 法師諦觀條.

14) 千惠鳳, 韓國印刷文化의發達 上 統一新羅~高麗時代, 韓國文化 7月號. 東京:自由社, 1981. p.34.

Ⅲ. 初彫大藏經

위에서 든 寶篋印陀尼經은 고려초기 彫板印刷術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수 있었으니, 이렇듯 훌륭한 印刷術은 高麗文化의 精髓인 初·續·再藏의 거창한 彫造事業을 나라로 하여금 성취케 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北宋이 10世紀末期 東洋에서 최초로 大藏經을 彫印하였고¹⁵⁾ 그 印成大藏經이 成宗 10年(991)에 도입되었으니¹⁶⁾ 佛敎文化和 彫板術이 고도로 발달한 고려로서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우리가 동양에서 처음으로 開板하여 文化國으로의 威力을 떨쳐 異民族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은근히 결심하였으나, 契丹의 外侵이 거세어¹⁷⁾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顯宗朝로 접어들면서 그 侵略이 더욱 모질었다.¹⁸⁾ 그리하여 佛力으로 그 國難을 타개코자 一大發願하여 마침내 顯宗 2年(1011) 무렵에 그 彫造에 착수한 것이 바로 初彫大藏經이었다.¹⁹⁾ 그 以後 彫造事業이 계속되어 同王 20年(1029)에는 상당한 종수가 彫成되었으며, 이를 祝賀하는 藏經道場이 會慶殿에서 대대적으로 베풀어지기도 하였다.²⁰⁾ 그가 在位했던 22년까지 근 20年間에 5千軸이라는 많은 大藏經이 彫成되었음이 義天의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 밝혀지고 있다.²¹⁾ 顯宗의 다음에는 德宗이 3年 그리고 靖宗이 12年間 在位하였으나, 藏經의 彫造에 관하여는 별로 이렇다 할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靖宗 7年 4月條를 보면 藏經道場을 會慶殿에 베풀고 春秋二季에 그 會를 春六日과 秋七日에 例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²⁾ 이것은 藏經의 新彫를 위한 道場이 아니고 이미 彫成된 藏經의 保護奉安을 위해 前例에 따라 베풀어진 道場인 것으로 여겨진다. 靖宗 때 朝廷에서는 주로 科擧用的 經史子集 諸書를 刊行하여 널리 퍼내는 데 힘썼던 것이다.

大藏經의 彫造事業은 文宗朝에 들어 와서 再開되었다. 그것은 위에서 든 義天의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文宗이 千萬頌의 契經을 鑲刻하였다고²³⁾ 한 기록으로 보아 능히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顯宗年間에 開寶勅板에 근거한 大藏經의 彫造가 상당히 진척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조조에는 이르지 못했던 듯하다. 榮州 浮石寺의 圓融國師碑銘을 보면 文宗 7年(1053)에 國師가 門徒에게 大藏經 一部帙을 마련하여 安國寺에 芸藏케 하였는데, 그것이 印本과 寫本으로 채워졌다고²⁴⁾ 하였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開板되지 못한 大藏經이 있었으

15) 道安, 中國大藏經彫印史, 大藏經研究彙編(上), 臺北:大乘文化出版社, 中華 66(1977). p.123.

16) ① 宋史 卷 487 高麗傳 淳化 2年條.

② 高麗史 卷 3 世家 卷第 3 成宗 10年 夏 4月條.

17) 上揭書 卷3 世家 卷第3 成宗 12年條.

18) 上揭書 卷4 世家 卷第4 顯宗 2年條.

19)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第25 末尾.

20)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顯宗 20年 夏 4月條.

21) 義天, 大覺國師文集 卷第15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22) 高麗史 卷6 世家 卷第6 靖宗 7年 夏 4月條.

23) 義天, 前揭書 卷第15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24) 朝鮮金石總覽上 82 順興浮石寺圓融國師碑 p. 27.

며, 그것이 文宗 때 再開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文宗 때 大藏經의 彫造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보다 활기를 띠게 된 것은 文宗 17년(1363) 契丹大藏經이 수입된²⁵⁾ 이후가 될 것이다. 高麗國 新彫大藏校正別錄의 내용과 傳存의 初彫板을 참고하면 契丹大藏經은 開寶勅板에 근거한 國前本에 漏落 또는 逸失된 것을 비롯하여 本文의 異譯·誤謬·脫缺·錯寫가 심한 것만을 가려 새로 새겨서 同一한 函次 또는 別途의 函次에 編入시키거나 代替編入시킨 것으로 나타난다.²⁶⁾ 이것을 國後本이라 일컫고 있다.²⁷⁾

그리고 文宗 37년(1083)에는 새로운 宋朝大藏經이 수입되어²⁸⁾ 또 새겨지기 시작했다. 이 때 들어 온 宋朝大藏經은 大藏目錄을 조사해 보면 宋新譯經論을 비롯한 貞元續開元釋教錄, 貞元新定釋教錄, 續貞元釋教錄에 入藏된 經論에 해당하며,²⁹⁾ 그 作業이 宣宗 4년(1087)에 一段落되었다. 그 해 2월에 임금이 開國寺에 가서 大藏經의 完成을 경축하였고,³⁰⁾ 3월에는 興王寺에 가서 大藏殿의 落成을 경축하였으며,³¹⁾ 4월에는 歸法寺에 가서 大藏經의 完成을 또한 경축하였다.³²⁾

이렇게 볼 때, 初彫大藏經의 彫造는 顯宗 2년(1011) 契丹 來侵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시작되어 顯宗·文宗의 兩朝에서 이루어졌으며 文宗末年에 들어 온 宋朝大藏經은 宣宗 4년까지 彫造 累加하여 一段落시킨 셈이다. 그러나 宋朝大藏經의 彫造가 이 때 완성된 것은 아니다. 再彫大藏目錄을 보면 그 以後 어느 때에 追彫 累加되었다.

初彫의 規模는 更函에 들어 있는 大藏目錄에 의해 살펴 볼 때, 天函부터 楚函까지의 570函이 되며, 그 중에서 再彫時 어느 정도의 取舍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그 卷數는 근 6千卷에 이른다. 이것은 義天이 쓴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에서도 6千來卷이라 밝히고 있어³³⁾ 一致된다.

初彫大藏經은 비록 北宋 開寶勅板에 이어 착수하여 契丹板의 다음에 세번째로 完成시켰지만, 藏經의 收錄範圍만은 當時까지 開板된 것중 가장 包括的인 漢譯正藏으로서 開寶勅板에 누락되었거나 異譯·錯寫가 심한 것은 本文이 優秀한 契丹藏經의 수용은 물론 宋新譯經論이 아울러 수용되고 있음을 특히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池內宏교수는 우리의 初彫正藏 全體를 北宋板本の 覆刻完成으로 보았으며,³⁴⁾ 國內學者가운데에도 최근까지 그 說을 따르는 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³⁵⁾ 이것은 初彫板本の 實物을 전혀 조사해 보지 못한데서 빚어진 착각임을 우선 지적해 둔다.

25) 高麗史 卷8 世家 卷第8 文宗 17年 3月條.

26) 守其, 高麗國新彫大藏校正別錄, 高麗大藏經 第38.

27) 上揭書, 卷第30 傾函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卷第13條.

28) ① 高麗史 卷9 世家 卷第9 文宗 37年 3月條.

② 義天, 前揭書 卷14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

29) 大藏目錄, 高麗大藏經 第38.

30) 高麗史 卷10 世家 卷第10 宣宗 4年 2月條.

31) 上揭書, 卷10 世家 卷第10 宣宗 4年 3月條.

32) 上揭書, 卷10 世家 卷第10 宣宗 4年 4月條.

33) 義天, 前揭書 卷14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教藏疏.

34)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上), 東洋學報 第13卷第3號(大正 12年 8月) p. 23.

35) 高麗大藏經 第 48 總目錄·解題·索引.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p. 5.

開寶 7년(974) 奉勅彫造의 刊記가 있는 開寶勅板 佛本行集經 卷第19의 南禪寺 所藏本 및 大觀 2년(1108) 10月の 印記가 있는 開寶板 御製秘藏詮 卷第 13의 하버드大學 포그美術博物館 所藏本 을 우리의 初彫大藏經 現傳本과 대사하여 볼 때, 책의 體裁 또는 板式이 공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本文과 版畫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꼭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本文에 있어서 初彫板本은 宋帝의 避諱缺畫을 많이 고쳐 새기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그 避諱缺畫字에는 匡胤(宋太祖의 諱), 弘殷(父의 諱), 敬徽擎警驚竟境鏡(祖의 諱 및 兼避字), 玄(始祖의 諱)등의 글자가 보이는데, 그것이 初彫板本에서 예외없이 省畫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完全하게 고쳐 새긴 것이 적지 않다. 體裁 또는 板式 그리고 本文을 그대로 臨寫하여 板刻用의 바탕 책을 마련할 때 그 缺畫字를 올바르게 고쳐 새긴 것이 오히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⁶⁾

둘째, 版畫에 있어서도 初彫板本은 그 構圖內容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새기고 있음을 들 수 있다. 御製秘藏詮 卷第13의 開寶勅板本과 初彫板本(南禪寺藏)의 같은 場面の 版畫를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立證된다. 그중 深山幽谷의 草庵에서 苦行修道하고 있는 周圍의 풍경을 묘사한 場面을 對査해 보기로 하겠다.(圖 2) 開寶勅板은 道場一帶의 風景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섬세하게 判각한 가운데서 靜인 柔麗感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그 技法이 纖細美麗한 巧를 보여주고 있지만, 苦行修道의 장소로는 그윽한 맛이 나지 않아 별로 어울리지 않는 構圖로 여겨진다. 한편, 初彫板은 험준한 奇岩이 중첩된 深山幽谷의 道場一帶를 웅장하게 묘사해 주고 있으나, 그 技法은 線이 굵고 素拙한 편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動的인 躍動感과 대담성을 느끼게 하며, 苦行修道의 장소로서도 매우 적합함을 實感케 하는 바 자못 大조적이다.³⁷⁾ 그리고 同卷의 다른 場面の 版畫에 있어서도 그와같은 差異가 있음은 물론이다(圖 3·4참조). 이렇듯 初彫本의 版畫들은 우리나라 美術의 傳統의 性格과 特徵을 여실히 부각시켜 준다.

셋째, 國後本の 바탕이된 契丹本은 본시 每行 17字本 이었는데,³⁸⁾ 그것을 14字本으로 고쳐 새겼음을 들 수 있다. 高麗國新彫校正別錄의 校正記에 의하면 契丹本은 每行 17字本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을 開寶勅板의 體裁 또는 板式에 준거, 새로 淨書하여 每行 14字本으로 새겨낸 것인데 그 板刻術은 傳存本の 實査에 의해 알 수 있듯이 開寶勅板보다 오히려 優雅精巧하다.³⁹⁾

그리고 그 底本에는 우리의 國內傳本도 들어 있으며 위의 校正別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손쉽게 가려낼 수 있다.

36) 千惠鳳, 初彫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大東文化研究 11輯(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院, 1976) pp.16~220.

37) 千惠鳳, 韓國의 古代版畫—初藏御製秘藏詮의 木板画—, 季刊美術(1977. 3). pp.133~139.
※ p.137의 上: 例 ① 初藏本(일본 南禪寺): 例 ② 北宋本(미국 하버드대학 포그미술박물관)으로 바로 잡음.

38) 守其, 前掲書 卷27 觀函 菩薩本緣經 卷上.

39) ① 千惠鳳, 初藏殘本道行般若經과 御製秘藏詮, 國學資料 24호(1977. 3)

② 千惠鳳, 高麗初彫國前本目連五百問事經에 대하여, 東方學志 23·24 合輯. 서울: 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1980. p. 253~285.

暎函 大樓炭經 卷第1~6 西晉 法立·法炬共譯.

渭函 十八部論 單卷 陳 眞諦譯

海函 辨正論 卷第1~8 唐 法琳撰.

佐函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 卷第1~5 唐 不空譯.

寧晉楚函 佛名經 卷第1~30 失 譯.

이들 國內傳本은 每行 17字本 以上の 寫本 또는 刊本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그중 傳存本인 一字頂輪王經과 佛名經을 보면 每行 14字로 淨書精刻된 板本이다. 글자모양이 均整된 歐陽詢체이고 適勁方正한 筆力이 예리하게 나타나고 있어 彫板術의 獨自的 優秀性은 과연 刮目할만 하다.⁴⁰⁾

이렇듯 精刻된 初彫의 經板이 興王寺의 大藏經에서 符仁寺로 옮겨져 管理되어오다 高宗 19년 (1232)의 蒙古軍 侵略으로 燒失되어 버렸음은 참으로 可惜한 일이다. 그 經板에서 찍어 낸 印本도 매우 많았음은 물론이겠으나 麗鮮의 兩朝를 통한 잇단 外侵과 內亂으로 掠奪·湮沒·燒失되어 본고장인 國內에서조차 얻어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종래 그 傳本은 日本 京都의 南禪寺에만 간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필자는 1966년에 日本 全國의 韓國典籍을 조사할 때 처음으로 實査하고 初彫本의 性格과 特徵을 식별할 수 있는 眼目을 갖게 되었다.⁴¹⁾ 그로 인해 그뒤 國內에서 20餘年間に 걸쳐 初彫板本을 무려 94종 143권이나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⁴²⁾ 또 1984년에는 2次에 걸친 日本對馬島學術調査에서 大般若波羅蜜多經 600卷중 584권(破本 64권 정도)을 찾아냈고, 壹岐 安國寺에서는 同經 219帖이 고려 초조본임을 확인 하였다.⁴³⁾ 그 중 특히 安國寺 소장본 권 33, 97, 319, 395, 576의 6帖에는 다음과 같은 墨書發願記가 있어 注目케 했다.

“菩薩弟子南瞻部洲 高麗國金海府戶長禮院使許珍壽 特爲聖壽天長 邦家地久 隣兵永息 禾稼豐登 然後慈親九族 福海增深 次願亡考尊靈 法界衆生 成無上道之願 謹成六百般若經 永充供養

重熙十五年丙戌四月日謹記”

重熙는 遼의 年號이며, 그 15年은 고려 靖宗 12年(1046)에 해당한다. 이 해에 고려국의 金海府 戶長이며 禮院使를 겸하고 있던 許珍壽가 慈親의 壽福과 亡考의 冥福을 빌기 위해 찍어 내서 金

40)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78. pp. 84~86.

41) ① 上掲書 p. 73.

② 金斗鍾, 現存한 高麗大藏經板에 對하여, 學術院創立20周年紀念講演論文別刷本. 서울: 大韓民國學術院, 1974.

42) ① 千惠鳳, 高麗初彫大藏經: 그 源流·影響 및 異說의 檢討를 中心으로, 人文科學 9輯(成均館大學校, 1980) pp. 47~62.

② 千惠鳳, 湖林博物館所藏 初彫大藏經調査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pp. 11~21.

43) ① 千惠鳳, 對馬·壹岐의 高麗初彫大藏經板 大般若波羅蜜多經, 佛敎와 諸科學(東國大學校, 1984). pp. 783~812.

② 日本國文化庁文化財保護部美術工藝課, 長崎安國寺高麗版大般若經. 東京: 昭和 50年(1975).

③ 山口麻太郎. 壹岐國安國寺藏大般若經について, 山口麻太郎著作集 第 3卷(東京: 蛟成出版社, 昭和 49) pp. 57~64.

④ 小松勝助. 長松寺의 高麗版大般若經, 上對馬町誌別刷(昭和 60) p. 1115~1125.

海 근처의 어느 寺刹佛腹에 永充供養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高麗末期무렵 日本三島の 倭寇중 惡名 높은 松浦海賊에 의해 약탈되었는데, 그뒤 다시 이곳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⁴⁴⁾

이들 國內外에서 實査한 初彫本은 巨帙의 全藏중 九牛一毛격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종래 거의 인물 또는 소실되었다고 단념해 왔던 것을 찾아 낸 것이니 실로 값진 거래와 나라의 보배라 하겠다.

IV. 續藏經

위에서 初彫의 正藏이 顯宗·文宗의 兩朝를 거쳐 宣宗4년에 一段落되었다고 하였거니와 한편, 文宗朝 後期에 이르러서는 正藏에 대한 新舊撰述의 諸宗義章과 疏鈔의 수집이 文宗의 넷째 왕자인 義天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마침내 19세 되던 文宗 28년(1674)에 代世子集教藏發願疏를 지어 遼와 宋에서 經論과 疏鈔를 구하여 一藏으로 갖추기 위해 入宋求法을 발원하였다.⁴⁵⁾ 그러나 父王인 文宗은 물론 그뒤 王位에 오른 형인 宣宗도 허락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宣宗 2년(1085) 4월에 微服으로 商船을 타고 入宋하여 各地를 순방하면서 유명한 法師들을 두루 찾아 法을 묻는 한편 章疏 3千餘卷을 모아 그 다음 해 6월에 귀국하였음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⁶⁾ 귀국한 후 그는 宣宗의 願薦으로 興王寺住持가 되었으나, 그 뒤도 諸宗의 章疏 수집에 힘을 기울여 얻어 낸 것이 新編諸宗教藏總錄 上中下 3卷이며, 수록된 總教藏은 1010部 4857卷이란 방대한 量이다.⁴⁷⁾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洋學問僧들의 章疏를 최초로 集大成하여 刊行코자 한 目錄인 점에서 注目케 한다.

여기에 수록된 教藏의 刊行에 대하여는 高麗史의 大覺國師傳을 볼 때 興王寺에 教藏都監의 설치를 주청하고 遼·宋·日本에서 購書한 4千卷을 모두 刊行하였다고 막연하게 기록하고 있는데,⁴⁸⁾ 高麗史節要에서는 그 記事를 義天이 宋나라에서 돌아 온 宣宗 3年(1086) 6월에 일괄수록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그 刊役이 마치 그해에 시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이도 없지 않다. 그러나

44) ① 申叔舟, 海東諸國記 甲寅字本.

② 瀬野精一郎. 長崎縣の歴史. 東京: 川出版社, 昭和 57(1982) p. 64~96.

③ 山口麻太郎, 前掲書 pp. 57~66.

45) 義天, 前掲書 卷第 14 疏文 代世子集教藏發願疏年十九作.

46) ① 高麗史 卷90 列傳 卷第3 宗室 1 大覺國師.

② 上掲書 卷10 世家 卷第10 宣宗 2年 夏 4月條.

③ 朝鮮金石總覽上 96 開城靈通寺 大覺國師碑.

④ 上掲書, 上 99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

⑤ 宋史 卷487 高麗傳.

⑥ 佛祖歷代通載 丁卯 및 戊辰條.

⑦ 千惠鳳,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注華嚴經板, 東方學志 54·55·56合輯(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1987) pp. 965~910.

47) 新編諸宗教藏總錄 「時後高麗十三葉 在宥之八年歲次庚午八月初八日 海東傳華嚴大教沙門義天叙」 參照.

48) 高麗史 卷90 列傳 卷第3 宗室 1 大覺國師條.

49) 高麗史節要 卷6 宣宗 丙寅 3年 6月條.

靈通寺의 大覺國師碑文을 보면 宣宗 8年 辛未(1091) 봄의 南遊에서 搜書하여 얻은 바 佛書 4千卷을 가지고 敎藏都監의 설치를 주청한 다음 名流를 소집하여 謬缺을 바로잡아 開板케 하니 文籍이 크게 갖추어졌다고 적혀 있다.⁵⁰⁾

한편, 現傳하고 있는 續藏의 原本을 비롯한 翻刻本 重印本에서 續藏의 彫造年代를 조사해 보면 宣宗9年(大安8, 1092)부터 肅宗4年(壽昌5, 1099)까지 나타나고 있다.⁵¹⁾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續藏의 刊行은 新編諸宗教藏總錄을 엮은 以後, 多분히는 訪書旅行을 마친 宣宗 8年(1091) 봄 以後부터 그가 入寂하였던 肅宗 6年(1101)以前까지의 사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되는 章疏가 開板되었는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高麗史의 大覺國師傳과 靈通寺大覺國師碑銘에서는 義天이 搜書한 章疏 4千卷이 모두 興王寺의 敎藏都監에서 彫造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저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4,857卷이 거의 開板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로서는 그 全帙의 彫造問題에 대하여 거의 신중론을 펴고 있다.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중요한 것을 챙겨 보면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千餘部 4千餘卷이란 巨帙을 조관함에 있어서는 관리상 函次표시가 필요했을 것이고 敎藏總錄의 序에서도 編次와 函帙을 언급하고 있는데 現傳의 資料에는 그 표시가 없으니 續藏은 全帙이 아닌 部分的인 開板으로 그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는 것이다.

둘째, 敎藏總錄에 수록된 章疏로서 고려 高宗때 大藏都監에서 開板된 3종, 즉 搜玄記·探玄記 및 金剛三昧經論을 續藏과 대조해 볼 때 그 板式·字體등이 전혀 다른 점을 들어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만일 續藏이 모두 彫造되었다면 오늘에 전해지는 翻刻本의 경우와 같이 그때의 刊本을 번각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으니 義天의 彫造는 全帙이 아니고 隨意的이며 部分的인 것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셋째, 初彫 및 再彫大藏經의 경우와 같이 既刊本을 바탕 또는 참작하여 새긴 것이 아니고 本文을 하나하나 꼼꼼히 校勘하고 補正한 다음, 깨끗이 새로 淨書하여 판각해 낸 말하자면 완전히 독자적 성격을 띤 開板本이기 때문에 4千餘卷이란 실로 방대한 양을 10年餘에 모두 彫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15世紀중기 무렵에 木活字를 만들어 佛經중, 주로 章疏類인 圓敎六即儀·傳法正宗記·釋迦如來行蹟頌·釋氏要覽·碧巖錄등을 찍어 낸 것을 보고 高麗鑄字로 續藏을 모두 찍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⁵³⁾ 高麗典籍의 폭넓은 實查가 반드시 先行되어야 함을 적어 느끼게

50) ① 朝鮮金石總覽 卷上96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p. 309.

②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篇 pp. 305~314.

51)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pp. 91~95.

52) ① 大屋德城, 朝鮮海印寺經板攷, 東洋學報 15-3號. (大正 15) pp. 355~360.

② 閔泳珪, 新編諸宗教藏總錄 p. 57.

53) 尹炳泰, 高麗金屬活字本과 그 起源, 도협월보 14-8(1973) p. 10~11.

한다.

藏藏總錄에 담겨진 章疏의 彫造가 義天의 궁극적인 大願이었음은 그의 文集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나, 그러나 뜻밖의 질병으로 나이 47세로 入寂하니⁵⁴⁾ 그 彫造事業이 部分的으로 그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全帙의 彫造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東洋學問僧의 章疏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目錄을 集大成하고 그 刊行을 進行시켰음이 初有의 偉大한 業績이었으며, 또한 印刷文化史의인 視角에서도 續藏本이 지닌 優秀性은 初彫와 再彫 大藏經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월등하다.

現傳하고 있는 續藏의 原本인 日本奈良의 東大寺圖書館에 소장된 澄觀 述의 大方廣佛花嚴經隨疏演義鈔 卷1~20 全40卷本과⁵⁵⁾ 東京 大東急文庫에 소장된 貞元新譯花嚴經疏 卷1~10 1軸⁵⁶⁾ 그리고 고 趙明基 舊藏의 注仁王護國般若經 卷1~4 1冊⁵⁷⁾을 볼 때, 첫째, 그 形態가 아주 작은 글자를 每行에 20~22字씩 뾰뾰하게 配字하고 있는 점에서 每行 14字씩 배자한 初彫와 再彫의 正藏本과는 전혀 다르다. 둘째, 글자체가 歐體인 점에서는 初彫와 再彫의 正藏本과 서로 共通하나, 그러나 續藏本은 既刊本을 바탕 또는 근거하여 새긴 것이 아니라 새로 板刻用의 바탕책을 정서하여 철저히 校補한 다음 새겨낸 말하자면 완전한 高麗의 獨自의 開板本의 성격울 지니고 있는 점에서 또한 크게 다르다. 셋째, 板刻術이 정교하여 板面의 印刷가 사뭇 우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도 初彫와 再彫의 正藏本보다 월등하게 손꼽혀지는 차이점이 될 것이다. 이처럼 續藏本은 初彫 및 再彫 正藏本의 추종을 단연코 불허케 하는 말하자면 高麗의 彫板印刷術을 대표하는 獨自의인 精作으로 손꼽아 결코 손색이 없을 것이다.⁵⁸⁾

V. 再彫大藏經

고려조 만큼 外侵에 시달린 역조는 없었다. 國初부터 恣行했던 契丹의 外侵에 이어 女眞 그리고 高宗 때에는 蒙古가 進寇하여 침입해 왔다. 高宗 18년(1231)에 몽고군이 開京에 육박해 오자 하는 수 없이 조정은 그 다음해에 강화로 피란하여 임시 首都로 삼고 外侵에 對抗하였다.⁵⁹⁾ 그 때 바로 符仁寺에 간직되었던 初彫大藏經板이 모두 燒失되고 말았다. 顯宗이 國難에 처해 護國과 國

54) ① 高麗史節要 卷第 6 肅宗 6年(1101) 9月條.

② 高麗史 卷第90 列傳 卷第3 宗室 1 大覺國師.

55) 東大寺藏國寶重文 善本聚英 高麗板華嚴經 隨疏演義鈔 40卷.

56) ① 韓國古印刷文化展. 서울:文化公報部海外公報館, 1984. p. 7.

② 千惠鳳, 新羅·高麗의 書籍·典籍, 韓國美術 2. 東京:講談社, 1986. p.114, 272.

③ 東國大學校八十周年紀念貞元新譯花嚴經疏 卷第 10 影印本 및 解說.

57) ① 趙明基, 大覺國師의 天台思想 續藏의 業績,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教學論文集(4292) p. 23.

②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86 指定篇). 서울:文化財管理局, 1988. pp.195~196.

③ 千惠鳳 書藝·典籍, 國寶 p.12, 284.

58)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pp.95~97.

59) 高麗史 卷 23 世家卷第23 高宗 19年 6月 乙丑條.

威宣揚을 목적으로 정성껏 彫成한 나라의 큰 보배가 一時에 焚失됨으로 인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으며, 外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또 다시 大藏經을 彫造하여 佛力の 守護를 비는 것이 最上의 方策임을 舉國的으로 發願하였다. 그리하여 亂中의 실로 어려운 역경임에도 그 彫造를 決行하여 마침내 成就시킨 것이 바로 再彫大藏經이요 현재 海印寺에 소장된 八萬大藏經이다.

再彫大藏經의 彫造年代는 李奎報가 지은 大藏刻板君臣祈告文의 丁酉年條와 高麗史 高宗世家條의 기록을 아울러 상고하면 高宗 23년(1236)부터 東王 38년(1251)까지 16년 걸려 완성시켰음을 알 수 있다.⁶⁰⁾ 이것은 大藏經의 印本에서 彫造年의 干支를 조사해 보아도 一致된다. 大藏經目錄의 첫머리인 天函부터 奈函까지에 수록된 大般若波羅蜜多經을 보면 彫造에 착수한 다음 해인 丁酉歲(高宗 24, 1237)부터 戊戌·己亥·庚子·辛丑·壬寅의 干支歲가 거의 차례로 표시되고 있으며, 끝의 田函부터 洞函까지에 들어 있는 一切經音義와 更函의 大藏目錄이 각각 戊申歲(高宗 35, 1248)의 刊行으로 표시되고 있다. 高宗23년에 彫造할 것을 決行하고 나무를 베어 켜서 鍊板處理하는 한편, 本文을 교정하여 새기는 과정이 1年 걸려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여 高宗 35년에 更函分까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函次에 수록된 藏經의 내용에 있어서 天函부터 英函까지에는 開寶勅板을 바탕으로 한 것에 漏落을 위시하여 異譯·錯寫가 심한 것은 契丹本과 國內傳本에 의거 판각하여 追加 또는 代替하였으며 그뒤의 諸函에는 宋朝大藏經을 바탕으로 한 것을 수록하였는데, 그중 新譯經論은 杜函에서 穀函까지와, 遵函에서 塞函까지에 兩分하여 刊行되는 대로 逐次累加하고 있다. 그리고 그 中間의 諸函에는 貞元續開元釋教錄·貞元新定釋教錄·續貞元釋教錄에 入藏된 經論과 그밖의 藏經系를 바탕으로 한 것이 彫造되는 대로 각각 累加式으로 混排되고 있다.⁶¹⁾

그리고 조선 高宗 2년(1865) 海冥壯雄이 追編한 大藏經目錄을 보면, 그 끝에 새로 宗鏡錄以下 15部 231卷(236권)⁶²⁾의 補遺板이 수록되고 있다. 그중 宗鏡錄 100卷은 祿侈富車駕肥輕策功茂의 10函에 수록되고, 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略稱: 證道歌事實)以下 14部131卷(136卷)은 庭부터 務까지의 14函에 수록되고 있다. 宗鏡錄은 高宗 33年(1246)부터 35年(1248)까지 3年걸려 慶尙道의 南海分司都監이 開板한 것이며, 板面의 形式이 原藏과 동일하고 各卷의 首尾題아래에 祿부터 茂까지의 函次도 표시되어 있다.⁶³⁾ 이 函次는 新集藏音義隨函錄의 一部를 비롯한 宋太宗의 御製

60) ①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第 25 末尾.

② 高麗史 卷 24 世家 卷第24 高宗 38年 9月條.

61) ① 高麗大藏經 第39 大藏目錄 上·中·下.

② 上揭書, 第31 開元釋教錄卷第 19~20 入藏錄.

③ 上揭書, 第38 貞元續開元釋教錄·貞元新定釋教錄·續貞元釋教錄.

④ 上揭書, 第38 高麗國新彫大藏校正別錄.

⑤ 趙安仁等, 大中祥符法寶錄.

⑥ 呂夷簡等, 景祐新修法寶錄.

62) 搜玄記 卷 1~5가 모두 上下로 細分卷되고 있는데, 그 細分卷을 합치면 10卷이 되므로 總卷數가 236권이 된다.

63) ① 大藏經細別目錄, 서울: 東國大學校, 4291年 8月 謄寫.

② 高麗大藏經 第48 總目錄·解題·索引 pp.503~516. 補遺目錄.

인 蓮華心輪廻文偈頌 秘藏詮 逍遙詠 緣識 및 貞元本 華嚴經의 一部에 해당하며, 이것이 이미 高宗 30년(1243)부터 刊行되었는데 어째서 二重으로 函次를 매겼는지가 문제이다.⁶⁴⁾ 아마도 大藏都監本司와 南海分司가 멀리 떨어져서 本意, 아니게 重複이 생겨 追編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듯하다. 그리고 證道歌事實 以下の 것은 모두 본시 函次가 매겨지지 않은 것을 海冥壯雄이 補遺한 것에 해당한다. 그중 庭函의 證道歌事實은 高宗 35년(1248)에 分司大藏都監이 晉陽公崔怡의 壽福을 빌기 위해 開板한 것이고 同函에 수록된 金剛三昧經論은 高宗 31년(1244)에 鄭晏이 매부 崔怡를 위해 刊行해 낸 것이다. 鄭晏은 南海에 살면서 佛敎를 崇尚하고 私財를 들여 分司大藏都監을 운영하며 藏經을 刊行하였다. 於函의 慈悲道場懺法은 無版心 無界의 卷子本形式이고⁶⁵⁾ 庭函의 法界圖는 證道歌事實과 같이 板心 無界의 小形本 版式으로서 역시 같은 무렵의 分司都監 刊行으로 여겨진다.

曠에서 遠까지의 函에 있는 祖堂集, 查函의 華嚴經搜玄分齊通知分軌(略稱: 搜玄記), 農에서 務까지의 函에 있는 華嚴經探玄記는 每行의 字數가 18~22字의 小形本이긴하나, 再彫大藏經의 形式을 지니고 있다. 이들 板本에는 각각 “乙巳歲(高宗 32, 1245) 分司大藏都監彫造(開板)”의 표시가 있다.

邈에서 岾까지의 函에 있는 禪門拈頌集에는 斷俗寺住持萬宗과 鄭晏의 두개 跋文이 있는데 그중 뒤의 跋文 내용에 의하면 萬宗이 崔怡의 延壽를 위해 발원하고 재물을 보내어 高宗30년(1243) 海藏分司에서 募工彫鏤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萬宗은 崔怡의 庶子로서⁶⁶⁾ 慶尙晉安東道에 있는 斷俗寺住持職에 있었으니 그도 南海의 分司大藏都監 운영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函의 十句章圓通鈔, 釋華嚴旨歸章圓通鈔, 華嚴經三寶章圓通記, 治函의 釋華嚴教分記圓通鈔 등은 板心이 없는 小形本이나 大藏都監 당시에 彫造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板本중, 十句章圓通鈔에는 高宗때의 僧 天其가 얻어 친히 方言을 刪除하고 差舛을 校正하는 한편, 法融의 本文을 참고해서 정서하여 後學들에게 베푼 사실이 高宗 37년(1250) 江都에서 그의 弟子에 의해 기록되고, 釋華嚴旨歸章圓通鈔에는 天其의 弟子들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 江華京 17年 즉 高宗 35년(1248) 東泉社에서 諸德에게 간청, 方言을 削去하여 베푼사실이 同王 38年(1251) 5月の 날짜로 적혀지고 있다. 華嚴經三寶章圓通記에는 年代表示가 없으나, 이에도 天其의 뜻을 그의 弟子들이 받들어 學人이 퍼냈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釋華嚴教分記圓通鈔에는 “江華京 辛亥(高宗38, 1251) 十一月書”의 표시가 있다. 이들 板本の 板式이 齊一하게 板心이 없는 小形卷子本인 점으로 보아, 天其의 門徒들이 原本을 정리·정서하여 江都에서 藏經 彫造의 餘業으로 追彫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64) 池内宏, 高麗朝の大藏經(下) p. 117에서는 宋延壽의 宗鏡錄을 宋朝新譯經論의 뒤에 編入시키려다 이미 初彫本에서 굳어진 函次를 크게 變更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計劃을 바꾸어 編入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였다.

65) 徐首生, 大藏經補遺板과 釋均如著四種에 대하여 (上) (別刷物) p. 31에서 禮念彌陀道場懺法和 함께 朝鮮朝의 重刊으로 보고 있으나, 字體 板刻技法 및 形式으로 보아 麗刻에 해당한다.

66) 高麗史 卷129 列傳 卷第22 叛逆 3 崔忠獻·怡·沆·瑄條 末尾 參照.

그러나 綿函의 大藏一覽은 板刻年代가 朝鮮前期로 떨어지고,⁶⁷⁾ 本函의 禮念彌陀道場懺法은 朝鮮 燕山君 8년(1502)에 重刻된 것이 편입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종을 제외하면 모두 大藏都監에서 正藏의 彫造가 一段落된 뒤에 餘業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⁶⁸⁾ 그밖에도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이 高宗 38年 分司大藏都監에서 奉勅鑄板되었다.⁶⁹⁾ 뿐만 아니라 南海의 分司都監 施設은 그뒤에도 한참동안 이용되었다. 몇해 전에 새로 발견되었다가 日本으로 흘러나간 宗門撫英集은 高宗41년(1214) 分司大藏都監이 刊行하였고,⁷⁰⁾ 高麗大學校圖書館에 소장된 註心賦도⁷¹⁾ 그해에 같은 分司都監이 刊行해 낸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分司都監의 설치는 南海 뿐만아니라 江華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것은 위의 補遺板이 아닌 正藏을 癸卯(1243) 甲辰·乙巳·丙午·丁未(1247)의 干支歲에 걸쳐 살펴볼 때 2卷 또는 3·4卷 짜리의 작은 分量의 책을 本司와 分司가 나누어 새겨 냈으니 그것을 江華·南海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分刻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⁷²⁾ 그러나 이에 는 이들의 板刻 상태와 기법 그리고 分司 표시의 생략등을 신중하게 연구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위에서 든 章疏와 僧傳類증 江都에서 餘業으로 이루어진 것을 除外하면 모두 南海의 分司都監에서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地方의 分司都監이 南海에 설치된 것은 그 곳이 晉陽君 崔怡의 본향인 晉州牧의 管轄로서 그들의 一派가 得勢와 權勢를 부리고 있는 地域이고, 한편으로는 經板用 木材인 후박나무등이 南海의 여러 섬에 많이 自生하고 있으며 그것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이 또한 매우 편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⁷³⁾

大藏都監의 本司와 分司가 開板한 藏經은 과연 어느 정도의 規模였을까? 大藏經目錄의 天에서 洞까지의 639函에 수록된 藏經의 總部數는 1547部 6547卷이고 補遺板을 추가하면 洞에서 務까지 그리고 重複된 祿에서 茂까지의 24函에 수록된 15部 231卷(查函 搜玄記 卷1~5 上下分卷을 10卷으로 본다면 236卷)을 합치면 총 663函 1562部 6,778卷(6783卷)이며, 그 經板 總數는 8萬 1千餘板이 된다.⁷⁴⁾

이들 經板이 彫造되자 江華都城 西門밖의 大藏經板堂에 수장되어 忠肅王 때에 이르렀음을 문헌

67) 明의 陳實編이며, 開板에 대한 刊記·序·跋이 없으나, 版式이 朝鮮朝前期로 推定된다. 徐首生の 前掲書 p.41에서는 高麗高宗甲辰年 乃至 戊申年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再考가 필요하다.

68) ① 大屋德城, 朝鮮海印寺經板攷, 東洋學報 15-3(大正 15) pp.313~314.

② 池內宏, 高麗朝의 大藏經(下) pp.125.

69)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41 末尾.

70) 曉城先生八十頌壽高麗佛籍集佚, 서울:東國大學校出版部, 1987. pp.161~468.

71) 高麗大學校圖書館漢籍目錄(舊藏), 서울:同館, 1984. p.20.

72) 朴相國, 海印寺大藏經板에 대한 再考察. 高麗大藏經資料集 I. 高麗大藏經研究會, 佛紀 2531. pp.336~337.

73) 金斗鍾, 韓國印刷技術史, 서울:探求堂, 1976. p.80.

74) 朴泳洙, 高麗大藏經板의 研究,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4292) p.430에서는 現存한 經板을 조사하여 1511종 81137板(重複 121板除外)로 발표하고 있다.

에서 상고할 수 있다.⁷⁵⁾ 그뒤 어느 때에 同島의 禪源寺로 옮겨졌다가 조선조 초기에 海印寺로 移安되었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太祖 7년(1398) 5월에 그 經板이 江華 禪源寺에서 出陸하여 龍山江에 이르렀을 때 비가 와서 西大門 밖의 支天寺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⁷⁶⁾ 그뒤 그것이 어떠한 經路를 거쳐 移運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定宗元年(1399) 正月 초 9일에 太祖가 요구하는 大藏經의 印成을 위해 慶尙監司가 海印寺에서 印經僧徒들에게 飯事를 제공하였다고 하니⁷⁷⁾ 移運이 그 전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때 옮겨진 大藏經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이 간직되어 오면서 그간 간단없이 인출되어 國內外에 널리 보급되었다. 그간의 印經 경위에 관하여는 太祖 2年(1393)부터 日帝時代까지의 印經跋이 板刻彙輯되고 있어 그 대강을 알 수 있지만⁷⁸⁾ 한편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된 기록을 보면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술한 回次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印成大藏經이 조선조 초기부터 주로 日本으로 수출되어 그곳의 佛敎文化를 찬란하게 꽃피우게 한 점은 크게 注目하여야 할 사실이다.

再彫大藏經을 形態書誌의인 視角에서 고찰하면 板式이 上下單邊, 無板心, 每行14字 卷子本 그리고 字体가 대체로 歐體의 方筆인 점은 初彫大藏經과 비교하여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同一書의 本文을 서로 比較해 보면 兩者에 적지 않은 差異가 나타난다. 이것은 再彫大藏經이 初彫大藏經을 그대로 번각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삼고 宋板과 契丹板 藏經과의 對校는 물론 각종의 釋敎錄을 두루 참용하여 本文의 誤脫과 錯寫를 철저히 校補하여 번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印刷文化史의인 視角에서 고찰하면 再彫大藏經은 初彫大藏經의 本文을 校補하여 번각해 냈기 때문에 彫板의 精刻度가 훨씬 떨어지고 또 御製秘藏詮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版畫의 새김을 省略한 것은 적지 않게 여겨지는 점이라 하겠다.

中國에서는 北宋의 開寶勅板 以後 福州의 東禪寺板 開元寺板 思溪板 磧砂板 元板 明板 淸板 등의 大藏經이 잇달아 出刊되었다.⁷⁹⁾ 그렇지만 이것들은 校勘이 부실하여 우리 再彫大藏經의 本文과는 비교할 바가 못된다. 東洋의 漢譯大藏經중 本文이 가장 잘 補修된 것이 우리의 高麗大藏經이라는 것은 國內外 學界에 의한 定評이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은 일찍이 明治年間に 이것을 定本으로 삼고 宋·元·明本으로 校合한 縮刷大藏經과 卍字大藏經 그리고 大正年間에는 新修大藏經을 펴냈으며, 中國에서도 高麗大藏經을 定本으로 삼은 縮刷大藏經을 逆輸入하여 頻伽精舍板을 펴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까지 國內外에 널리 보급되어 主用되고 있는 大藏經이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만큼 우리의 高麗大藏經은 本文이 優秀한 佛典임이 여실히 부각된다 하겠다.

75) ① 朴全之, 靈鳳山龍巖寺重創記. 東文選68 記.

② 李能和, 朝鮮佛敎通史下編 大法寶海印藏經板 p. 428.

76) 太祖實錄 卷 14 7年戊寅 5月條.

77) 定宗實錄 卷 1 元年 正月 庚辰條.

78) 伽倻山海印寺史蹟의 伽倻山海印寺古籍 다음에 “大藏經印成跋”이 수록되어 있음.

79) ① 道安, 中國大藏經彫印史, 大藏經研究彙編(上) pp. 105~168.

② 李圓淨, 歷代漢文大藏經概略, 大藏經研究編(上) pp. 93~104.

③ 周叔迦, 大藏經彫印源流紀略, 大藏經研究編(上) pp. 67~92.

④ 葉恭綽. 歷代藏經考略, 大藏經研究彙編(上). pp. 49~66.

VI. 寺 刹 板

고려가 建國하여 佛敎를 國敎로 삼자 그 信仰度가 날로 높아지고 寺刹에 의한 佛經 刊行이 점차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현전하는 穆宗 10년(1007)간행의 摠持寺板 寶篋印陀羅尼經 木板本을 볼때 이보다 앞서 간행한 吳越板 同陀羅尼經 木板本보다 훨씬 精巧한 점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이렇듯 麗初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던 寺刹印刷은 풍요해진 寺院經濟와 王室·貴族·權臣·富豪들의 다양한 祈願佛事에 힘입어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寺刹의 僧侶들이 鍊板·板刻·印出·粧冊의 경험을 직접 체득하여 自力으로 수행하였고 板刻用 木材를 주위의 山林에서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었으므로 寺刹板의 印刷가 고도로 발달하여 高麗板刻術의 核을 이루었던 것이다.

蔡忠順이 엮은 開城의 大慈恩玄化寺碑陰記에 의하면⁸⁰⁾ 初彫藏經의 彫造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顯宗은 考妣의 冥福을 빌기 위해 同王9년(1018) 玄化寺를 創建하기 시작하여⁸¹⁾ 同王11년에는 鑄鍾하여 親擊까지하였으며, 아울러 工人들에게 특명을 내려 大般若波羅蜜多經 600卷·三本華嚴經·金光明經·法華經등을 새겨 간직케 하고 특별히 般若經寶로 이름붙여 잘 관리하면서 널리 印刷케 하였다.⁸²⁾ 이들 寺刹板은 大藏經과는 달리 글자가 작고 한행에 17字 또는 그보다 더 뾰뾰하게 간행했음은 물론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文宗 5년(1051) 정월에 眞觀寺에서 新成華嚴經과 般若經을 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⁸³⁾ 華嚴經은 三本중 어느 것에 해당하고 般若經도 大品·小品 및 각종 般若經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중 般若經 系統을 먼저 살펴 볼 때 그 모두가 藏經 첫머리의 函次에 해당하여 이미 顯宗년간에 刊行되었으므로 여기 文宗 5년의 新成本은 眞觀寺에서 刊行된 寺刹本임을 넉넉히 알 수 있게 한다.

金堤 金山寺의 慧德王師眞應塔碑銘에 의하면 順宗 元年(1083)부터 肅宗 2年(1097)까지의 사이에 韶顯大師가 그절에 廣敎院을 짓고 慈恩이 지은 法華玄贊·唯識述記등의 章疏 32部 353卷을 考正開板하였으며,⁸⁴⁾ 宣宗 5年(1088)에는 慈恩의 阿彌陀經通贊疏도 刊行해 냈다.⁸⁵⁾ 이 무렵은 義天이 東洋學問僧들의 新舊撰述인 諸宗義章과 疏鈔를 수집하여 刊行하려고 활동한 시기이므로 그의 洪願을 돕게 위해 이렇듯 廣敎院을 짓고 실천으로 옮겼던 것으로 여겨진다.⁸⁶⁾ 金山寺에서는 이보다 훨씬 뒤이지만, 高宗5년(1218)에 梵書摠持集을 精刻해 냈다. 惠勤大師가 발원하고 仁赫大師가 새긴 梵字總持의 集成인 袖珍折帖本이다.⁸⁷⁾

海印寺에서는 宣宗 6年(1089)에 天台四敎儀를 重刊하고,⁸⁸⁾ 肅宗3年(1098)에는 華嚴經晋本을

80) 朝鮮金石總覽 上 73 開城玄化寺碑陰記.

81) 高麗史 卷4 世家 卷第4 顯宗 9年 6月條.

82) 上揭書 卷4 世家 卷第4 顯宗 11年 9月條.

83) 上揭書 卷7 世家 卷第7 文宗 5年 春正月條.

84) 朝鮮金石總覽 上 92 金溝金山寺 慧德王師眞應塔碑 p. 298.

85) 慈恩, 阿彌陀經通贊疏 卷下 刊記.

86)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서울: 東國文化社, 1964. p. 89.

87) 高麗佛書展觀目錄, 서울: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佛紀 1990. p. 12.

88) 同書 卷末刊記: 「大安五年藏次 己巳(1089) 二月日 海印寺重刊」.

刊行하였다. 華嚴經은 同寺의 依止僧인 成軒이 시주하여 판각한 國內傳本系의 歐體 17字本이며,⁸⁹⁾ 字体 板式 彫板技法이 그해 5월에 高麗國陝州戶長同正인 李必先의 시주로 새긴 李元基珍藏의 晋本 卷第37(국보 202호)과 같다. 板刻이 매우 정교하여 인쇄가 깨끗하고 아름답다.⁹⁰⁾ 이것과 관련하여 소개할 것은 智異山 拯倫寺住持 暢春의 捨財로 간행한 晋本 卷第33이다.⁹¹⁾ 刊行年표시가 있는 것이 缺失되었으나, 字体 板式 彫板技法이 李必先의 施財晋本과 비슷하다. 위의 海印寺 開板本과 관련성이 있는 듯하다. 그밖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晋本이 趙炳舜珍藏에 두 종(보물 685, 686호)들어있다. 海印寺에서는 高宗 23년(1236) 6월에 梵釋四天王陀羅尼經을 每行 12字로 單板의 兩面에 판각하였으며 그 板木이 寺刊板으로 지금까지 經板庫에 간직되어 있다.⁹²⁾ 海印寺의 東·西쪽 經板庫에는 高麗中期부터 朝鮮朝에 걸쳐 本寺가 開板한 것은 물론 다른 寺刹 그리고 刊經都監·地方官署·個人들이 鏤板한 것까지 위탁보존된 채 오늘에 전래되고 있다. 이것을 흔히 海印寺藏寺刊板 또는 雜板이라 일컫고 있다. 그 寺刊板 또는 雜板중에서 高麗經板만을 가려 28종 2725판은 국보 제206호, 26종 110판은 보물 제734호로 지정하여 보존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⁹³⁾

이들 經板중에는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 않거나 매우 희귀한 자료가 들어 있으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元曉의 十門和淨論은 진작 잃었는데, 그중 卷上의 2板(9, 10, 15, 16장)이 겨우 여기에 전래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義湘의 撰을 고려의 体元이 註解한 白花道場發願文略解 殘板, 体元 註解의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義天의 大覺國師文集·外集, 고려 白賁華의 南陽詩集등은 모두 귀중한 문헌적 價値를 지니고 있는 자료들이다. 唐나라 慈愍의 略諸經論念佛法門往生淨土集은 중국 淨土教 3派중의 하나를 다룬 것으로서 일찍이 없어진 것이 오직 여기에 그 殘板이 전래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⁹⁴⁾

특히 佛教美術史의 視角에서 특기할 것은 大型의 變相圖를 판각한 高麗板木이 전래되고 있는 점이다. 그중 周本八十華嚴經變相圖는 세로 23.5cm 가로 57.5cm의 大型版畫로서 42板 84장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고 晋本 六十華嚴經變相圖 殘缺板도 있으며, 그밖에도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大型版畫가 있는데 이에 板刻時期를 달리하는 것이 2종이나 들어 있다. 이것은 모두 唯一하게 전해지는 귀중자료로서 고려의 佛教美術史 研究에 있어서 크나큰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經板에 있어서 또 注目하여야 할 것은 高宗 때 政權을 專橫하였던 晋陽公 崔怡(舊

89) 國寶 12 書藝·典籍, 서울:藝耕産業社, 1985. p.269 海印寺高麗刻板 28種 2725板중 (15) 大方廣佛華嚴經(晋本) 肅宗板 卷 45 第 21장 끝에 “伽耶山海印寺依止僧成軒 特爲天長地久之願 施財開此卷普施 壽昌 四年 戊寅(肅宗 3, 1098) 三月日謹記”라 있음.

90) 上掲書 p.120, 217 大方廣佛華嚴經 晋本(卷 37) 1卷의 卷末에 “高麗陝州戶長同正 李必先上報四恩 下滋 三有之願 施財彫版花嚴經 第三十七卷 時壽昌 四年(1098) 五月 日記”라 있음.

91) 同書 卷末에 “智異山 拯倫寺住持比丘 暢春祝聖壽之願 捨財開板晋譯花嚴經 第一卷”이라 있음.

92) 朴奉石(和山博重). 伽耶山海印寺經板について(複製本) p.67.

93) ① 文化財大觀 2, 國寶 2 p.180, 232; 8 寶物 8, p.168, 255.

國寶 12, 書藝·典籍, p.114, 115, 269, 270.

94) 大屋徳城, 朝鮮海印寺經板考, 東洋學報 15-3.(大正 15) pp.348~354.

名瑀)와 관련된 것이 여러 종 전래되고 있는 점이다. 그중 大字金剛經은 高宗 24년(1237)12월에 자신이 직접 發願하여 새겨 낸 것에 해당한다. 유달리 정성을 들여 그 板刻이 매우 정교롭다. 그의 처남인 鄭晏(舊名 奮)은 南海에 살면서 崔怡를 위해 私財을 들여 많은 佛經을 刊行하였는데,⁹⁵⁾ 여기 經板庫에도 法華經 金剛經 華嚴經 普賢行願品 預修十王經등의 板木이 간직되고 있다. 어느 것이든 판각이 정교하고 鍊板處理가 신중하여 아직도 그 狀態가 양호한 편이다. 상필 刊記를 잃은 殘板중에도 晉陽公의 壽福을 빌기 위해 開板된 것이 적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仁宗 3년(1125)에 세운 般若寺의 元景王師碑銘에 의하면 元景王師가 門人覺純등과 더불어 詳定을 가하고 종별로 분류하여 250卷으로 엮은 다음 題名을 釋苑詞林으로 下賜 받은 義天의 著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元景이 義天의 渡宋 때 侍從하였고 續藏을 刊行할 때도 校正 開板하는데 힘썼으니 이 책도 그 무렵에 편찬 간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卷第191부터 195까지의 5卷 1冊이 겨우 전해지고 있다.⁹⁶⁾

熙宗·康宗年間に 있어서 曹溪山 修禪寺는 熙宗 3년(1207)에 法寶壇經, 康宗 2년(1213)에 宗鏡撮要와 正法眼藏을 각각 刊行해 냈다. 法寶壇經은 六祖惠能禪師의 語錄으로서 知訥跋에 의하면 社內道人湛默이 重刻한 것이고,⁹⁷⁾ 宗鏡撮要是 無衣子 慧湛의 跋에 의하면 同社가 募工重彫한 것이며,⁹⁸⁾ 正法眼藏은 道人正宣이 重板印施한 것에 해당한다.⁹⁹⁾ 그리고 이 修禪寺에서는 高宗 2년(1215) 5월에 慧湛이 洪州居士 李克材의 施財를 얻어 看話決疑論을 開板하기도 하였다.¹⁰⁰⁾ 熙宗5년(1209) 普濟寺에서는 了悟沙門이 永嘉大師證道歌를 번각해 냈는데, 傳存本을 보면 大師의 妹인 淨居의 誄가 삼입되고 있어 學人들의 이목을 끌게 하고 있다.¹⁰¹⁾ 字体·板式 및 刻字의 형태로 보아 宋板의 번각인데, 이 책은 그뒤 己亥年(1239 혹은 1299)에 文林郎司宰少卿으로 있던 李時茂가 또 重彫하기도 했다. 그 己亥年이 언제인지 확실치 않으나, 文官 從9品の 文林郎이 忠烈王 34년(1308)에 通仕郎으로 고쳐졌으니 高宗 26年(1239)이 아니면 忠烈王 25年(1299)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高宗年間に 刊行된 寺刹板은 위에서 든 것 이외도, 高宗 1년(1214)에 群生寺가 刊行한 金剛經과 同王 24년(1237)에 白蓮社가 刊行한 三大部節要도 있음을 첨언해 둔다. 그중 金剛經은 探古重大師의 施財로 無求居士 周通富가 쓰고 淸守大師 孝如가 새겼으며 그 殘板이 海印寺에 전래되고 있다.¹⁰²⁾ 三大部節要是 崔滋撰의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에 의해 알려지고 있을 뿐¹⁰³⁾ 그 傳本

95) 高麗史 卷 129 列傳 卷第 42 叛逆 3 崔忠獻·怡·沆·竄 末尾.

96) ① 朝鮮金石總覽 上 97 陝川 般若寺元景王師碑 pp. 319~320.

② 趙明基,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pp. 88~40.

97) 黑田亮, 朝鮮舊書考.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p. 104.

98) 李謙魯藏, 宗鏡撮要 卷末跋.

99) 同書 卷末 刊記.

100) 同書 卷末 無衣子慧湛跋.

101) 曉城先生八十頌壽高麗佛籍集佚, p. 17~60.

102) 海印寺藏寺刊板 同書 印本 卷末에 “貞祐二年甲戌(1214) 十月日道人迅機誌”라 있음.

103) ① 東文選 117卷 碑銘 萬德山 白蓮社圓妙國師碑銘序.

② 朝鮮金石總覽, 上 附 30 唐津白蓮社圓妙國師中眞塔碑 p. 592.

은 아직껏 나타난 것이 없는 듯하다.

順興의 浮石寺는 華嚴宗刹의 본산으로서 信徒들이 많아 年中行事를 표시한 冊曆까지 板刻하여 널리 반포하였다. 그중 高宗 6년(1219)6월에 새긴 曆書板木 2板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어 高麗의 曆書 연구는 물론 華嚴宗派史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것으로 여겨진다. 또 同王 37년(1253) 7월에는 阿彌陀經을 刊行해 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熙宗의 다섯째 왕자인 覺膺이 住持를 맡고 있었을 때 阿彌陀佛을 頂戴奉安하고 있는 本寺의 加護를 비는 징표로서 刊行하여 板殿에 安藏한 것에 해당한다.¹⁰⁴⁾ 그리고 同寺의 無量殿에는 고려 때 새긴 三本 華嚴經 原板과 宣祖 1年(1568)의 補板을 합친 634板이 지금까지 傳存되고 있어 보물제 735호로 지정되었다.¹⁰⁵⁾ 刊記가 새겨진 原板의 소실이 못내 안타깝다. 문헌에 따라서는 文宗朝로 추정하기도 하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¹⁰⁶⁾ 板式을 보면 卷子本形式에서 方冊으로 넘어 온 初期의 좁은 板心の 無黑口 無魚尾의 紙葉에 每行34字가 뺄뺄하게 配字된 小字本이다. 고려 때 流行되었던 華嚴經은 대체로 北宋開寶勅板藏經系의 14字本이 아니면 國內傳本系의 17字本인데, 이 浮石寺板만은 유독 특이하게 34字本이다. ‘紙薄字密’의 契丹本으로¹⁰⁷⁾ 보고 있는 趙炳舜藏 晋本 卷第30~40의 1冊과 고 趙明基藏 周本 卷第1~10의 1冊과 對査하여 보니 板式 字體 行字數등이 전혀 동일하다. 元宗 忠烈王 때의 高僧 宓庵이 쓴 丹本大藏慶讚疏에서 말하는 ‘紙薄字密’의 小字 契丹本을 번각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⁰⁸⁾ 裝訂과 板式의 변천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번각의 시기는 13~14世紀로 넓게 추정할 수 있으니, 契丹本이 未傳되고 있는 오늘날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忠烈王朝에서 開板된 寺刹板으로서는 仁興寺가 同王 4년(1278)에 歷代年表와 同王 19년(1293)에 大悲心陀羅尼經을 각각 간행해낸 것을 먼저 들 수 있다. 歷代年表는 2板이 현재 海印寺에 殘存되고 있으며,¹⁰⁹⁾ 佛家의 年表인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大悲心陀羅尼는 同書의 刊記에 仁興社의 開板이 명시되어 있다.¹¹⁰⁾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寺刹板은 新荷寺가 同王7년(1278)에 刊行한 長壽滅罪陀羅尼經과, 濟州妙蓮寺가 同王22년(1296)에 간행한 金光明經이 알려지고 있다. 앞의 것은 新荷寺 典香正玄과 田廬가 함께 발원하여 새긴것으로서 刊板이 지금도 海印寺에 간직되고 있으며,¹¹¹⁾ 뒤의 것은 章疏의 重修로서 “元貞二年丙申歲(忠烈王 22,1296) 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修 幹善瀑布寺住持禪師安立”과 같이 그 形式이 續藏의 原刊記를 본따고 있음

104) ① 同書 卷末의 “庚戌(高宗 37, 1250) 七月 日誌 浮石寺僧統 覺膺” 參照.

② 高麗史 卷 91 列傳 卷第 4 宗室 그의 “熙宗五子……沖明國師覺膺” 參照.

105) ① 千惠鳳, 浮石寺의 三本華嚴經板, 佛教美術 3(1977) pp.45~49.

② 國寶 12, 書藝·典籍, pp.116~117, 270.

106)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篇 華嚴經刊板考. pp.49~50 및 輿地勝覽寺社事蹟 p.755.

107) 宓菴, 丹本大藏慶讚疏, 東文選 卷112.

108) ① 趙明基, 佛教典籍으로서의 交流, 民族文化論叢 4(嶺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3) pp.83~84.

② 千惠鳳, 韓國傳存의 中國古板本에 對하여, 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台灣聯經出版社, 中華 76) pp.877~880.

109) 海印寺藏寺刹板 同書 刊記의 “至元 十五年(1278) 仁興社開板”.

110)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藏 同書 刊記의 “至元癸巳(1293) 正月日仁興社開板”

111) 海印寺藏寺刹板 同書 刊記의 “至元十五年(1278) 五月 日誌”.

이 특징이다.¹¹²⁾

忠肅王과 忠惠王 年間的 寺利板으로서 忠肅王 17년(1330)에 寶城寺가 開板한 佛頂尊勝陀羅尼經이 있고,¹¹³⁾ 忠惠王 元年(1340)에는 鷄龍山 東學社가 開板한 地藏菩薩本願經과¹¹⁴⁾ 萬義寺가 開板한 法華靈驗傳이 있으며,¹¹⁵⁾ 忠惠王 2년(1341)에는 小伯山 正覺社가 重刻한 佛祖三經 등이 알려져 있다.¹¹⁶⁾ 이것들은 어느 것이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꼭 오래된 寺利板인 점에서 注目케 한다. 그중 특히 法華靈驗傳은 忠惠王(復位)때의 王師인 了圓이 지은 것을 妙慧大師가 처음으로 刊行해 낸 것인데, 그 가운데는 그간 逸失된 高麗眞淨國師의 海東傳弘錄 一部와 다른 文獻에서 얻어 볼 수 없는 羅麗沙門들의 傳記資料가 들어있어 대견하게 평가되고 있다.

恭愍王때부터 恭讓王때까지의 사이에 開板된 寺利板은 비교적 여러종 전래되고 있다. 元나라의 京師에 세운 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우리나라의 晋城君姜金剛이 恭愍王4년(1355)에 藏乘法數를 刊行하였고,¹¹⁷⁾ 同王6년(1357)에는 人天眼目を 刊行하였다.¹¹⁸⁾ 姜金剛은 忠惠王 때 宦者로 元나라에 들어가 資政院使의 職位에서 侍衛한 공로가 매우 컸었다. 그리하여 國內에 돌아 오면 宮中에서 극진하게 향연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¹¹⁹⁾ 그의 고향인 退串部를 奈城縣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하였다.¹²⁰⁾ 그는 본시 崇佛心이 돈독하여 比丘 一擘과 同願施財하여 既刻의 袖珍 金剛經 刻板에서 忠肅王 復位 8년(1339)에 찍어내는 등 많은 佛經을 刊行하여 널리 보급시키기도 하였다.¹²¹⁾ 그리고 위에서 든 高麗壽慶寺板 藏乘法數는 恭讓王 元年(1389)에 麗末鮮初의 高僧인 無學大師 自超가 翻刻印施한 것이 전래되고 있으며,¹²²⁾ 人天眼目도 無學大師가 朝鮮 太祖 4년(1395) 檜巖寺에서 번각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¹²³⁾ 恭愍王 6년(1357) 全州의 德雲寺에서는 志禪 祖桓이 優婆塞 金貯가 입수한 책에 의거 金剛經을 開板하였다. 개권벽두를 說法圖로 莊嚴하게 꾸민 것이 이채롭다. 主佛인 大乘教主 釋迦牟尼佛이 蓮花台에 正座하고 無量壽佛이 對座하고 있으며, 釋迦佛 앞에서 10弟子의 하나인 須菩提가 說法을 講問하고 그 주위를 護法金剛夜叉와 靈鳥使者가 호위하고 있는 장면의 板畫이다.¹²⁴⁾ 高麗佛籍중 이러한 형식의 彫板은 여기서 처음으로 보는 귀중자료이다.

112) 松廣寺藏 同書 奉宣重修記 參照.

113) 天磨山 寶城寺板 佛頂尊勝陀羅尼經의 “天曆三年庚午(1330) 正月上旬 天磨山寶城寺開板”.

114) 黑田亮, 朝鮮舊書考 p. 59.

115) 故金庠基 舊藏 文殊寺 重刊本 卷末跋.

116) 誠庵古書博物館藏 佛祖三經 刊記.

117) “蒼龍己巳(1389) 九月日 韓山君 李橋跋”이 있는 藏乘法教 舊刊記.

118) 山氣文庫藏 太祖 4年(1395) 刊 檜巖寺留板舊刊記.

119) 高麗史 卷 38 世家 卷第 38 恭愍王 乙未 4年 9月 壬寅條.

120) 新增東國輿地勝覽 第24卷 安東大都護府建置沿革 屬縣 奈城縣.

121) ① 文化財大觀 8 寶物 6 p. 202, 266 細小字 金剛經.

② 國寶 12 書藝·典籍 p. 128, 274 細小字金剛經.

122) ① 高麗佛書展觀目錄 p. 42.

② 國寶 12 書藝·典籍 p. 264, 280.

123) ① 文化財大觀 8 寶物 6 p. 146, 247.

② 國寶 12 書藝·典籍 p. 150, 279, 280.

124)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p. 150~152.

恭愍王10년(1361) 全州의 圓巖寺에서는 佛祖三經을 重刊해 냈는데 그 板本이 몇종 전래되고 있다.¹²⁵⁾ 恭愍王19년(1370) 南原의 歸正禪寺에서는 法寶壇經을 간행해 냈다. 이것은 知門下省事 李金剛이 全羅道都巡門使로 부임하였을 때 開板한 것이다.¹²⁶⁾ 그리고 3年 뒤인 同王 21년(1372)에는 開京의 靈通寺에서 華嚴經疏變相圖, 安城의 靑龍寺에서 首楞嚴經 小字本, 廣明寺·開天寺·掘山寺·伏巖寺에서 共同으로 傳燈錄을 開板해 냈다. 그중 華嚴經疏變相圖는 大覺國師 義天이 入宋求法할때 注文하여 수입한 淨源錄疏注經板에 變相圖가 없어서 이를 李美沖·朴成亮·金師幸등의 施財와 알선으로 都變相圖를 새겨 留板한 것에 해당한다.¹²⁷⁾ 두번째의 首楞嚴經은 中國板 小字本을 檀那인 金瑚와 靈岩郡夫人 崔氏등의 功德施主로 번각한 것이며,¹²⁸⁾ 끝의 傳燈錄은 李穡序에 의하면 本書의 板本이 兵火로 毀失되어 判曹溪宗事臣 覺雲의 요청으로 임금이 위에서 든 各寺刹에 명하여 分刻케한 것이다.¹²⁹⁾

禡王年間으로 들어 와서 元年(1375)에는 智異山 無爲庵에서 佛頂尊勝陀羅尼經을 刊行하고¹³⁰⁾ 同王3년(1377)에는 淸州 興德寺에서 白雲和尚景閑이 抄錄한 佛祖直指心體要節을 鑄字로 찍어 냈다. 파리 國立圖書館소장인 卷下 零本の 末尾에 禡王 3년(1377) 7月 淸州牧의 郊外에 있던 興德寺가 鑄字印施했음을 밝혀주고 있다.¹³¹⁾ 또 몇해 전에 같은 鑄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번각본도 발견되었다. 同王 4년(1378)에는 鷲巖寺에서 위에서 든 佛祖直指心體要節을 木板本으로 重刊한 것이 國立中央圖書館에 傳存되어 있고,¹³²⁾ 그 해 한달 뒤에는 그 질이 또한 白雲和尚語錄을 刊行하였으며 그 板本이 서울大學校圖書館에 간직되고 있다.¹³³⁾ 이들 책은 白雲의 弟子와 門人들이 두 寺刹에서 募緣하여 편찬 刊印한 印刷資料이다.

禡王年間の 前期에 忠州의 靑龍(禪)寺와 그 질의 宴晦庵에서는 여러 종의 佛籍을 開板하였다. 同王 4년(1378)에는 金剛經疏論纂要助顯錄과 禪林寶訓을 鋟梓하였고, 그 다음 해인 5년(1379)에는 護法論 그리고 7년(1381)에는 禪宗永嘉集을 잇달아 上梓하였다. 그중 助顯錄은 麗末의 名僧인 幻奄混修의 刊記에 의하면 高息機가 募損하여 門人 萬恢와 尙侯로 하여금 開板케 한 것이고,¹³⁴⁾ 禪林寶訓은 幻菴의 門人 尙偉가 募損하여 彫板 廣布한 것이며,¹³⁵⁾ 護法論은 幻菴의 命으로 僧俊

125) ① 文化財大觀 8 寶物 6 p.138, 244.

② 國寶 12 書藝·典籍 p.132, 275.

126) 高麗史 卷 42 世家 卷第 42 恭愍王庚戌 19年 戊寅條.

127) ① 千惠鳳,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注華嚴經板, 東方學志 54·55·56合集(延世大學校國學研究院, 1987) p.913-917.

② 動產文化財指定調查報告書. 서울:文化財管理局, 1988. p.8-10.

128) “洪武五年壬子(1372)十月苾芻即了跋”

129) 東文選 卷 86 序 李穡 傳燈錄序.

130) “洪武八年(1375)五月 智異山無爲菴重刊”

131) 千惠鳳, 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影印本. 解題本). 서울:文化財管理局, 1987.

132) 千惠鳳, 國立中央圖書館所藏의 白雲和尚抄錄佛祖心體要節, 文化財 6輯(1972) p.165-168.

133) ① 江田俊雄. 高麗板白雲和尚語錄に就いて, 朝鮮佛教の研究. 東京:國書刊行會, 1977.

②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下. 서울: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p.1325.

134) ① 國寶 12 書藝·典籍 p.141, 277.

② 文化財大觀 8 寶物 6 p.157, 252.

135) ① 上揭書 p.144, 246.

② 國寶 12 書藝·典籍 p.143, 278.

이 刊行한 것임을 밝혀 주고 있다.¹³⁶⁾ 그리고 永嘉集은 淡如·覺訥·李仁鄰등이 주관하여 역시 同寺에서 上梓留板한 것에 해당한다.¹³⁷⁾ 禡王 13년(1387) 京都 金沙寺에서는 川老解의 金剛經과 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를 刊刻 留板하였다. 이 두책에 붙인 李穡의 跋에 의하면 晋原君 柳珣와 晋川君 姜仁富가 주간이 되어 禡王謹妃에게 傳刻流通할 것을 啓請하여 施財케 하고 化主 志成·覺毫의 지휘아래 志淡이 새기고 角之가 跋을 써서 印施하였다. 王妃의 施財로 刊行한 것인 만큼 板刻이 精巧한 寺利板 이다.¹³⁸⁾ 禡王 13년(1387)에는 또한 佛峯峙의 高達寺가 大慧普覺禪師書를 開刊하였다.¹³⁹⁾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書狀, 日本에서 大惠書라 일컫는 宗杲의 書狀集인데, 沙彌의 敎科書인 四集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傳本이 매우 많으나 刊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板本은 宋나라에서 1166년 妙喜庵이 간행한 것을 수입하여 飜刻해 낸 것이다.

寺利板중에는 殘缺本인 까닭에 刊記를 잃어 開板事項을 알 수 없는 것이 적지 않고, 어떤 것은 干支로 표시되어 어느 王朝의 어떤 即位紀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것도 있으며, 또한 開板處의 표시가 없는 것도 그 數가 적지 않다. 刊記를 잃은 것 가운데에는 꽤 오래된 板本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實査한 寺利本중 가장 오래된 것은 三本華嚴經·法華經·金光明經의 殘缺本이다. 板刻이 매우 精巧하고 글자의 書法이 고려 肅宗朝의 板本과 다르며 먹색이 진하고 윤이 나는 優秀한 印本이다. 玄化寺의 刊印이 아닌가 기대하며 考證資料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 들어야 할 것은 “海東沙門守其藏本”의 所藏印이 찍힌 華嚴經 周本 卷6의 1軸이다. 그 卷末에는 “潭陽郡戶長同正田洵美亦出母利往願之成”의 墨書識記가 있다. 全羅道 潭陽의 田洵美가 生母의 往生을 기원하기 위해 印成한 것이 守其法師의 소장을 거쳐 佛腹에 入藏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⁰⁾ 守其法師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再彫大藏經을 校正하여 刊行한 巨役을 맡아 본 高僧이다. 이 華嚴經의 字体와 크기 그리고 板題, 卷張次의 表示形式이 고려 肅宗朝의 三本嚴嚴經과 동일하다. 再彫大藏經의 華嚴經은 初彫의 14字本 形式을 버리고 國內傳本의 17字本에 의했으니 이 책이 바로 그 底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守其藏本은 12~13世紀의 刊印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板本은 趙炳舜所藏에 여러 種이 간직되고 있다.¹⁴¹⁾

위에서 서술한 바의 高麗寺利板이 지닌 性格과 特徵을 살펴보면, 첫째, 形態書誌的인 視角에 의할 때 國初의 小字本이 佛敎文化의 발전에 따라 讀經과 研究에 편리하도록 책의 크기와 글자가 크고 글자수가 많아져 寺利本은 대체로 每行 17字를 前後한 형태로 流行하였으며, 책의 裝訂도 卷軸裝 折帖裝에서 版心이 있는 蝴蝶裝 包背裝 線裝으로 변천하였다. 字体에 있어서는 初期의 寺

136) ① 東文選 卷 102 跋 李穡 護法論跋.

② 國寶 12, 書藝·典籍, p.145, 278.

137) ① 李謙魯藏山氣文庫目錄. 서울: 國學資料保存會, 1974. p.140.

② 國寶 12, 書藝·典籍, p.246, 278.

138) 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 卷末의 “板留京都 金沙寺” 參照.

139) 高麗佛書展觀目錄, p.36.

140) ① 文化財大觀 2, 國寶 2, p.179, 231.

② 國寶 12, 書藝·典籍, p.122, 272.

141) 上揭書, pp.121~124, 272~273.

利板을 볼 때 신라에서 계승하여 발전시킨 寫經體에 歐體의 方筆과 圓筆을 곁들인 것이었으나, 그뒤 그 寫經體가 筆書 또는 行書의 筆法으로 변천하기도 하고 혹은 세로가 좀 길쭉한 長方形의 歐體가 아니면 세로와 가로가 비슷한 方形의 歐體 筆法등으로 자유롭게 구사하는 변천을 보게 했다. 그리고 大覺國師文集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義天의 門人 慧觀이 독자적 書法이 流行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王羲之의 晉體書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筆畫의 結構에 힘이 날카롭게 약동하고 있으며, 坦然은 물론 慧素의 筆法과도 서로 共通한다는 평이다.¹⁴²⁾ 그러나 元나라가 支配한 高麗末에 이르는 사이에는 松雪體가 流行되어 널리 퍼졌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中國本을 수입하여 그대로 鑿刻受容하기도 하였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새김이 거칠어 印刷가 조잡한 편이었다. 특히 高麗末期의 板本들이 그러하였다.

둘째, 彫板印刷術의 視角에 의하면 高麗寺利本은 國初부터 말기까지 全代에 걸쳐 고려의 板刻術을 발달시키는 原動力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려 초기의 摠持寺板 寶篋印陀羅尼經을 보면 細小字이면서도 板刻이 精緻하여 글자획이 均整하고 筆力이 약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獨自의인 彫板術이 마침내 國刊 大藏經의 初彫와 再彫를 훌륭하게 성취시키고 續藏을 수준 높은 段階로 끌어 올렸다. 肅宗年間 海印寺 拯倫寺 등에서 刊行한 華嚴經을 볼 때 그 모두가 17字로 정교롭게 새겨진 獨自의인 板本들이며 또 高宗朝에서 새긴 木板本을 볼 때도 모두가 뛰어난 精作들이다 이와같이 優雅精巧한 寺利本의 板刻術이 고려 全代에 걸쳐 木板印刷術을 발전시키는 데 큰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圖 6).

Ⅶ. 官板

中央 및 地方의 官署가 經史를 비롯한 子集의 典籍을 板刻하기 시작한 것은 初彫大藏經 彫造의 舉國의 事業이 상당히 진척되고 그로 인해 官署의 彫板術도 크게 진전되었으며, 한편으로는 顯宗朝 이후 契丹의 侵入이 멈추어 科學와 學問을 위한 向學熱이 京鄕에서 크게 높아져 典籍에의 社會的 需要가 늘어나기 시작한 무렵이라 하겠다.

官板중, 經籍의 刻印과 冊板의 관리를 맡은 中央官署의 秘書省이 開板한 것으로는 靖宗 11년(1045) 4월에 新刊한 禮記正義 70本과 毛詩正義 10本이 최초의 것이다. 이것은 王命에 의해 이루어져 一本은 御書閣에 비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文臣들에게 頒賜되었다.¹⁴³⁾

地方官署에서 典籍을 간행한 기록은 이보다 3년 앞선 同王 8년(1042) 2월 東京副留守 崔顯등이 王命을 받들어 前後漢書와 唐書를 新刊하여 進上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⁴⁴⁾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142) ① 任昌淳, 高麗時代의 印刷術, 第五回 東洋學學術會講演會. 서울: 東洋學研究所, 1975. p. 26.

② 任昌淳, 韓國의 書藝, 國寶 12, p. 199~206.

143) ① 高麗史 卷 6 世家 卷第 6 靖宗 11年 4月 己酉條.

② 高麗史節要 卷 4 靖宗 11年夏 4月條.

144) ① 上揭書 卷 4 靖宗 8年 2月條.

② 高麗史 卷 6 世家 卷第 6 靖宗 8年 2月 己亥條.

보면 中央 및 地方官署의 木板印刷은 初彫藏經의 刊役이 상당히 진척되었던 顯宗朝를 지나 靖宗朝에서 서서히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文宗朝로 접어들어 본격화하였다. 同王10년(1056) 8월 西京의 留守는 京内の 進士와 明經등의 諸業學人이 공부하는 책이 대체로 傳寫한 것으로 틀린 글자가 많음을 알고 秘閣 소장의 九經과 論語·孝經·漢書·晉書·唐書를 비롯한 子部·史部·諸家文集·醫書·卜書·地理·律算의 諸書를 分賜하여 諸學院에 비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리하여 각 一本씩 찍어 보냈으니,¹⁴⁵⁾ 이무렵에는 각 主題分野에 걸쳐 冊板이 많이 새겨져 秘閣에 收藏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종 12년(1058) 9월에는 忠州牧이 새로 새긴 黃帝八十一難經·川玉集·傷寒論·本草括要·小兒巢氏病源·小兒藥證·張仲卿五臟論의 99板,¹⁴⁶⁾ 同王 13년(1059) 2월에는 安西(海州)都護府使 都官員外郎 異善貞 등이 새로 새긴 肘後方 73板, 疑獄集 11板, 川玉集 10板¹⁴⁷⁾ 그리고 知異山(星州) 府事 殿中內給事 李成美가 새로 새긴 隋書 680板¹⁴⁸⁾을 각각 秘閣에 入藏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또 그해 4월에 知南原府使 試禮部員外郎 李靖恭은 三禮圖 54板과 孫卿子書 92板을 새겨 秘閣에 進上하기도 하였다.¹⁴⁹⁾

文宗때 大備된 典籍은 마침내 中國에까지 알려졌다. 宣宗 8년(1091)에 宋帝가 우리나라에 좋은 책이 많음을 듣고 館伴에게 명하여 求書目錄을 작성하여 주면서 卷帙이 부족한 것이라도 모두 배껴 오라고 지시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目錄에는 稀覯典籍이 많이 들어있으며 총 127종 5천권에 이르렀다.¹⁵⁰⁾ 그 요구에 따라 보내 준 典籍에는 中國의 秘閣에도 없는 異本이 많아서 秘書省은 서로 對校하고 別本을 작성하여 太淸樓와 天章閣에 두었다고 하였다.¹⁵¹⁾ 그리고 高麗本은 遼나라에도 전래되었다. 耶律固 등이 귀국할때 春秋釋例 金華瀛洲集의 下賜를 그 一例로 들 수 있다.¹⁵²⁾

고려의 木板印刷術은 11世紀에서 고도로 발달하였다. 거질의 초조 대장경 刊役이 一段落되고 續藏의 刊行이 開京의 教藏都監에서 진행중이며, 中國에서 求해온 典籍들이 여러 官署 또는 寺刹에서 꾸준히 開板되어 왔다. 그 板刻術도 宋板의 精巧度を 肉迫하여 사뭇 優秀하였다. 마침내 宋에서는 蘇東坡가 奏議하여 고려에의 典籍 輸出을 막게 하였으며 그 결과 宋에서의 求書가 매우 까다로워지기도 했다.¹⁵³⁾ 이처럼 文宗·宣宗의 兩朝에서 典籍이 대대적으로 수집되고 板刻이 盛行하여 學問이 크게 진작되었다.

肅宗은 經史에 博通하고 典籍을 사뭇 愛護하였다.¹⁵⁴⁾ 이러한 崇文好學의 임금은 마침내 종래의

145) 上揭書, 卷7 世家 卷第7 文宗 10年 8月 戊辰條.

146) 上揭書, 卷8 世家 卷第8 文宗 12年 9月 己巳條.

147) 上揭書, 卷8 世家 卷第8 文宗 13年 2月 丁卯條.

148) 上揭書, 卷8 世家 卷第8 文宗 13年 2月 丁卯條.

149) 上揭書, 卷8 世家 卷第8 文宗 13年 4月 庚辰條.

150) 上揭書, 卷10 世家 卷第 10 宣宗 辛未 8年 6月 丙午條.

151) 王應麟, 玉海 卷 52 藝文書目 景德太淸樓 四部書目 嘉祐補寫 太淸樓書條.

152) 高麗史 卷 13 世家 卷第 13 睿宗 8年 2月 庚寅條.

153) 蘇軾, 蘇東坡全集 卷 41 大文類奏議 論高麗買書利害劄子 元祐 8年 2月初 1日.

154) 高麗史 卷 11 世家 卷第 11 肅宗 1. 3~4行.

文教政策에 큰 變革을 가하였다. 그는 元年부터 잇달아 文德殿·延英殿·重光殿에 친히 거동하여 歷代로 간직해온 典籍의 수집사정을 두루 檢閱하고¹⁵⁵⁾ 그중 重光殿의 藏書에 “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 大宋建中靖國元年 大遼乾統元年”과 “高麗國御藏書”의 藏書印을 찍어 典籍의 保存管理에 善선수범을 보여 주었다.¹⁵⁶⁾ 文德殿의 藏書에 대하여는 部帙이 완전한 것은 文德殿·長齡殿의 御書房과 秘書閣에 分藏시키고 나머지의 것은 宰臣·誥院·史翰·內侍·文臣들에게 등차있게 下賜하여 그 活用을 적극 도모하였다.¹⁵⁷⁾ 또한 九經子史의 典籍을 각 一本씩 御史臺·尙書省 및 樞密院에도 分置하여 그 利用을 권장하였다.¹⁵⁸⁾

이와같이 肅宗은 즉위초부터 典籍의 保存과 그 活用策을 펴오더니, 同王 6년(1101) 3월에는 秘閣에 소장된 冊板까지 檢閱하고 冊板이 쌓이고 쌓여 취급할 때 毀損이 생겼음을 지적하는 한편, 國子監에 새로 書籍鋪를 미련하고 이들 冊板을 모두 옮겨 보관하면서 자유롭게 찍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¹⁵⁹⁾ 官板印刷業務의 一部를 秘閣에서 國立大學인 國子監으로 옮긴 까닭은 秘閣의 冊板이 累積되어 毀損이 생겼기 때문인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活用對策을 강구하기 위함에 있었음을 더욱 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當時까지의 國子監은 私學十二徒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니, 冊板을 옮겨 學生들이 필요한 책을 마음대로 찍어 이용할 수 있도록 勉學 분위기를 조성하여 學問의 質的向上을 도모하려는데 있었음은 물론이다.

國子監은 睿宗 14년(1119)에 와서 처음으로 養賢庫를 설립하고 學舍를 지어 擴張하는 한편 名儒를 뽑아 學生의 敎導에 더욱 힘을 기울였으므로¹⁶⁰⁾ 書籍鋪의 印刷業務도 한층 강화되어 敎材의 보급은 물론 藏書의 構成에도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學士를 選置하고 朝夕으로 經書를 講論하기 위해 同王 11년(1116)에 처음으로 세운 바 있는 清燕閣에는 經史子集의 四部典籍이 고루 비치되어 있었고, 臨川閣에도 數萬卷의 書籍이 있었음을 仁宗元年(1123) 王都에 와서 약 1개월간 見聞하고 귀국하여 적은 宋나라 徐兢의 高麗圖經이 전해 준다¹⁶¹⁾

仁宗 4년(1126)에 있었던 李資謙의 亂으로 宮禁이 焚蕩되고 오직 山呼·賞春·賞花의 三亭 및 內帝釋院의 廊廡數十間만아 겨우 남아 있었으므로¹⁶²⁾ 宮中の 諸藏書도 烏有로 돌아 간것만은 사실인데, 당시 禮賢坊에 위치했던¹⁶³⁾ 國子監의 書籍鋪에 관하여는 피해의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다. 기록이 전해 주고 있는 바로서는 國子監은 오히려 仁宗 때 京師六學 즉 國子學·太學·四門學·律學·書學·算學의 制度가 채택되고 各業의 科目, 試驗의 課程 및 學式이 詳定되는 등 그 內實이 완비되었다. 또 地方에도 勸을 내려 學校를 세워 敎道를 넓히게 하였다.¹⁶⁴⁾ 그리고 毅宗

155) 韓在濂, 高麗古都徵 卷 2 官殿考.

156) 日本宮內庁 書陵部所藏 北宋板通典과 前田家尊經閣 所藏 重光會史.

157) 高麗史 卷 11 世家 卷第 11 肅宗元年秋 7月 庚寅條.

158) 上揭書, 卷 11 世家 卷第 11 肅宗 6年 正月 丁卯條.

159) 上揭書, 卷 11 世家 卷第 11 肅宗 6年 3月 壬申條.

160) 上揭書, 卷 74 志 卷第 28 選舉 2 學校條.

161)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 6 官殿 2 p.28, 32.

162) 高麗史 卷 127 列傳 卷第 10 叛逆 1 李資謙條.

163) 徐兢, 前揭書 卷 16 官府 p.79.

164) 高麗史 卷 74志 卷第 28 選舉 2 仁宗朝 參照.

때는 升補試 즉 生員試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詩賦와 經義에 合格한 州縣學校 출신자를 배출하였다.¹⁶⁵⁾ 그 결과 地方의 向學熱이 한층 높아졌으니 教材의 量產流通을 더욱 필요케 하였을 것이다.

書籍鋪가 國子監에 設置된 後 한동안은 典籍이 새로 彫印 進上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明宗 때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明宗의 庚寅年(1170)에는 鄭仲夫의 亂으로 文臣이 많이 虐殺되고 同王元年(1171)에 宮闕이 또 다시 불탔으며 同王 3년(1173) 에도 文臣을 대거 虐殺하는 등의 비극으로 學問과 教育活動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地方官署로 하여금 板刻進上케 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同王 22년(1192) 4月에는 淸燕閣 옆에 세운 寶文閣에서¹⁶⁶⁾ 王命으로 書筵의 諸儒들이 모여 讐校한 增續資治通鑑을 州縣官署에 分送 彫印케 한 다음 바치도록 하여 侍從 儒臣들에 나누어 주었다.¹⁶⁷⁾ 여기서 注目케 하는 것은 이 때도 책의 校勘은 역시 中央官署가 맡고 板刻은 地方官署가 맡는 官板印刷政策을 그대로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開板코자 하는 책을 寶文閣에서 校勘한 다음 여러 州縣官署에 分送하여 새기게 한 例는 卷帙이 浩繁한 경우도 있지만 또한 빨리 刊行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王寵을 받는 文臣의 遺稿와 撰述의 刊行도 있었다. 金克己의 金居士集을 빨리 刊行해서 세상에 퍼내라는 王命에 따라 數個의 州官署에 分送하여 板刻케 하기도 하였고,¹⁶⁸⁾ 崔惟淸의 撰述인 李翰林集注와 柳文事實의 내용을 御覽하고 嘉賞하게 여겨 板刻하여 傳世케 하였으니,¹⁶⁹⁾ 이것도 地方官署가 上梓했음은 물론일 것이다.

이와같이 板刻은 간간이 이루어졌으나 武臣의 專權政治時代로 접어든 이후는 文臣과 儒者들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혹은 농락 이용되는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學問과 教育이 不振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衰頽一路에 있던 學校教育이 復興하기 시작한 것은 安珣이 忠烈王 15년(1289) 燕京에 가서 朱子學을 도입해 온 이후가 되며, 同王 30년(1304)에 瞻學錢의 基金을 모아 養賢庫에 귀속 운영함으로써 활기를 띠었다. 또한 江南에 보내어 六經·諸子·史書등의 典籍을 求하여 教育의 내실을 기하였으므로 學問을 志願하는 선비와 七管 十二徒의 학생들이 經書를 끼고 授業을 받으러 온 자가 거의 數百名을 헤아렸다고 한다.¹⁷⁰⁾ 元에서의 求書導入은 忠肅王 元年(1314)條에도 보인다. 成均館 提學司에서 博士 柳衍과 學諭 俞迪을 중국 江南에 보내어 經籍 1萬8百卷을 購得해 왔고¹⁷¹⁾ 또 그해에 元나라의 仁宗은 高麗王에게 典籍 萬7千卷 4千3百71冊을 보내 온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宋나라 秘閣 소장의 珍籍에 해당한다. 이처럼 많은 典籍의 購得과 受贈은 당시 太子 府參軍

165) 上揭書, 卷 74志 卷第 28 選舉 2 科目 2.

166) 韓在廉, 前揭書 卷 2 淸燕閣 附 寶文閣 pp. 69~70.

167) 高麗史 卷 20 世家 卷第 20 明宗 22年 4月 壬子條.

168) 東文選 卷 83 俞升旦 金居士集序.

169) 高麗史節要 第 12卷 明宗 4年 12月條.

170) 高麗史 卷 74志 卷第 28 選舉 2 學校.

171) 上揭書, 卷 34 世家 卷第 34 忠肅王 元年 6月 庚寅條.

으로 南京에 있었던 判典校寺事 洪淪의 도움과 奏請에 의한 것이었다.¹⁷²⁾ 그 수입된 典籍중 중요한 것은 高麗末期에 이르기까지 飜刻이 이루어지면서 敎學과 勉學에 이용되었다. 오늘에 전래되고 있는 宋本系와 元本系의 飜刻本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이렇듯 敎學復興의 분위기가 造成됨에 따라 安珣以後 白頤正·禹倬등에 이어 李齊賢의 門生인 李檣과 그의 後輩인 鄭夢周·李崇仁·鄭道傳 그리고 鄭夢周의 후배인 權近·吉再등의 鴻儒碩學이 속출하여 敎學의 分担에 힘썼으며, 그로 인해 性理學의 기초가 다져져 儒學은 一新되었다.

高麗朝는 國家의 基本理念과 來世觀을 佛敎에 두면서도 治世의 현실은 儒敎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文治에 있어서 棟樑이 되고자 큰 뜻을 품은 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科試를 위해 經學을 포함한 儒學은 물론 詩文學·史學등을 열심히 공부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결국 詩文學이 儒學의 바탕 위에서 찬란하게 꽃피었으며, 史學에 정통하여 儒家의 眼目에서 쓴 史書가 나왔다. 科擧를 거쳐 文史에 밝은 文士들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비록 文士들이 소외되었던 武臣執政期라 하더라도 著述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 이후 敎學이 復興되면서 부터는 그 著述이 다양해지고 學問의 영역도 넓어졌다. 그 결과 儒學·文學·史學등 각 主題分野에 걸친 彫板이 高麗末期까지 촉진되었다. 그 彫板은 주로 地方官署가 담당하였음이 특징이며, 그중 一部는 私家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에서 거론하지 못한 地方官板으로서 傳存되거나 文獻記錄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主題分野로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儒書分野는 卅州에서 恭愍王 19년(1370) 牧使로 부임한 李仁敏이 近思錄을 宗門 李魯叔으로 하여금 刊行케한 것이 전해지고 있으며,¹⁷³⁾ 그 다음해에는 牧에서 직접 倪士毅 輯釋의 中庸朱子或問을 開板하였는데 그중 2종이 전래되고 있다.¹⁷⁴⁾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언급해 둘 것은 字體·板式·紙質·板刻技法의 정도 등이 꼭 같으나 刊記의 紙葉을 잃은 倪士毅 輯釋의 大學朱子或問 麗刻本이 전래되고 있는 점이다.¹⁷⁵⁾ 倪士毅에 의한 四書輯釋이 至元 3년(1337) 봄 3월에 시작하여 同 5년(1339) 7월에 具藁되었고, 그 元板本을 도입하여 飜刻한 것이므로 또 다른 輯釋이 더 나타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尙州牧에서는 恭讓王 3년(1391)에 陳澹의 禮記集說을 重刊해 냈다. 慶尙道都觀察使 安翊進의 重刊 進箋文에 의하면 李崇仁이 그 刊行을 위촉받고 尙州牧使 李復始에게 移文하여 重刊케 했음이 밝혀지고 있다.¹⁷⁶⁾ 그 밖에도 刊記를 잃은 補板混入의 麗刻本에서 數種의 儒書를 더 보았으나 모두 開板事項이 未詳이다.

詩文集 分野에는 여러 地方官板이 전래되고 있다. 東京(慶州)官에서는 高宗朝에 林惟正의 百家

172) 上揭書, 卷 34 世家 卷第 34 忠肅王 元年 7月 甲寅條.

173) ① 文化財大觀 8 寶物 6 p.82, 225.

② 國寶 12, 書藝·典籍, p.133, 275.

174) ① 上揭書, p.135, 136, 276.

② 文化財大觀 8, 寶物 6, p.148, 248.

175)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藏 大學朱子或問.

176) ① 李崇仁, 陶隱先生文集 第 5 進重刊 陳澹集說 禮記箋.

② 李仁榮, 清芬室書目 卷 3 p.133.

衣集과 忠烈王 27년(1301)에 玉川先生詩集을 刊行하였다. 그 중 앞의 것은 趙文拔 및 南秀文의 序跋文에 의하면 撰者가 早歿한 뒤 散逸한 遺篇을 崔瑀의 부탁으로 搜得 輯錄하여 慶州에서 刊行한 것이며,¹⁷⁷⁾ 뒤의 것은 唐나라 盧仝의 著述인데 同書의 刊記에 의하면 忠烈王 27년(1301) 東京官에서 刊行해 냈다.¹⁷⁸⁾ 西京(平壤)官板에는 高宗 9년(1222)에 刊行한 林椿의 西河先生集이 있다. 補板이 混入된 原刻板에서 後刷한 誠庵本의 崔瑀跋을 보면 西京의 여러 學院에 板刻케 한 다음 開京의 書籍店으로 보내어 거기서 찍어 流通시켰음을 알 수 있다.¹⁷⁹⁾ 晉州牧의 管轄區域인 南海分司都監에서 高宗 38년(1251) 再彫藏經 彫造의 餘暇에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 前後集을 刊行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¹⁸⁰⁾ 그 殘本이 여러 곳에 전래되고 있다. 그리고 근자에 이 分司都監板과 字體 匡郭크기 行字數가 전혀 다른 補板 混入의 舊刻板에서 後刷해낸 零本(後集 卷第1~4) 1冊이 또한 발견되었다.¹⁸¹⁾ 分司都監板의 後跋에서 李益培가 本板에 앞선 通行本이 있었으나 訛舛과 脫漏된 곳이 많다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이것이 먼저 流布되었던 舊槧異板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晉州牧에서 開板한 官板으로는 그 밖에도 崔瀛의 拙藁千百이 恭愍王 3년(1354)에 刊行되었고 東人之文四六一 또한 그무렵에 上梓되었다. 앞의 책은 日本 前田家尊經閣에 소장되어 있고,¹⁸²⁾ 뒤의 책은 高麗大學校圖書館에 소장되고 있다.¹⁸³⁾ 福州(安東) 官板에는 忠肅王(復位) 6년(1337) 開板의 夾注名賢十鈔詩와 恭愍王 4년(1355) 開板의 東人之文四六一 그리고 同王 7년(1381) 開板의 歐蘇手簡이 알려지고 있다. 名賢十鈔詩는 東國과 中國의 詩文合編이며, 同書 重刻本の 權擘跋文에 忠肅王(復位) 6(1337)년 安東府에서 刊行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¹⁸⁴⁾ 東人之文四六一은 晚松金完變舊藏本에 刊記가 표시되고 있으며, 위에서 든 晉州牧板 殘本과 합쳐 第1~15卷 5冊의 完本이 채워졌다.¹⁸⁵⁾ 그리고 최근에 東人之文五七 第7·8·9卷 1冊이 또 발견되었다.¹⁸⁶⁾ 五七로서는 처음 나타난 것이나 刊記를 잃어 開板事項을 알 수 없다. 現傳의 晉州板을 방불케 하므로 여기에 붙여 두기로 한다. 東文選에 수록되지 않은 詩가 들어 있어 注目케 한다. 歐蘇手簡은 宋나라의 歐陽修와 蘇軾의 書簡을 倭寇 征伐을 위해 安東兵馬使로 赴任한 바 있던 鄭南晉이 刊行한 것이며, 卷末에 刊記가 새겨지고 있다.¹⁸⁷⁾

177) 東文選 卷 84 序 趙文拔 百家衣詩序.

178)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6.

179) 誠庵文庫典籍目錄. 서울: 國學資料保存會, 1975, p. 485.

18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後集 卷末의 跋尾.

181) 誠庵古書博物館珍藏本.

182) 崔瀛, 拙藁千百.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同書 影印本 卷末 刊記 參照.

183) 晚松金完變文庫目錄, 서울: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1979. p. 9.

184) ① 金休. 海東文獻總錄. 서울: 新韓書林, 1969. p. 693.

② 故 金完變藏 同書 權擘跋. 擘

185) ① 晚松 金完變文庫目錄, p. 9.

② 國寶 12, 書藝·典籍, p. 131, 274, 275.

③ 文化財大觀 8, 寶物 6, pp. 151~153, 249~250.

186) 三省出版博物館藏本.

187) ① 同書 跋文의 “洪武十四年辛酉(1381) 九月日 安東府開刊”

② 高麗史 卷134 列傳 卷47 辛偶 7年 5月條. 視

李奎報가 쓴 全州牧新彫東坡文集 跋尾에 의하면 東坡文集이 일찍이 尙州에서 飜刻되었으나 蒙古의 兵火로 焚燒되어 完山(全州)太守 禮部郎中 崔址가 高宗 23년(1236)경 全州牧에서 다시 重録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⁸⁸⁾ 全州牧에서는 그 밖에도 東人之文과 拙藁千百이 刊行되었다. 閔思平의 부탁을 받고 鄭國徑이 全羅道按廉使로 全州牧에 부임하여 忠宣王 1년(1349) 무렵에 上梓해낸 것이다.¹⁸⁹⁾

史書分野는 全州牧에서 十二國史를 彫印한 것을 먼저 들 수 있다. 李奎報의 十二國史重彫後序에 의하면 그가 일찍이 完山(全州)牧에서 掌書記로 있었을 때 按廉使郎將盧公이 牧官에게 新刊케 했다는 것이다.¹⁹⁰⁾ 李奎報는 神宗 2년(1199) 9월에 全州牧司錄 兼 掌書記로 부임하여 그 다음해 12월에 면직되었으니¹⁹¹⁾ 이 무렵에 開板된 것이다. 晋州牧에서는 元貞年間 즉 忠烈王 21~22年(1295~96)에 李承休 撰의 帝王韻紀를 勅令으로 刊行하였고,¹⁹²⁾ 그 뒤 東京(慶州)官에서는 그 晋州牧板이 오래되어 써고 희미하여 姪婿인 安克仁의 부탁으로 恭愍王 9년(1360)에 또다시 刊行해 내기도 하였다.¹⁹³⁾ 慶州府에서는 또한 三國史記도 鋟梓해 냈다. 金居斗跋文에 의하면 조선 太祖 初까지 鷄林인 慶州에 있었던 三國史記 印本은 세월이 오래되니 없어지고 주로 寫本이 通行되매 前任府使 陳義貴와 後任府使인 自己가 다시 刻成해 냈다고 하였다.¹⁹⁴⁾ 여기서 말하는 慶州에 있었던 三國史記 印本은 東京官이 板刻해 낸 冊板에서 찍은 책을 뜻하며 그 冊板이 오래되어 마멸되고 서실이 생겨 印出使用이 불가능해서 다시 改刊했음을 뜻한다. 高麗後期の 重刊本으로 여겨지는 卷第44~50 零本 1冊이 誠庵珍藏에 소장되고 있다.¹⁹⁵⁾ 三國史記는 仁宗 때 金富軾이 王命으로 엮은 뒤 初刊이 毅宗 때 이루어졌는데, 高麗官板이 거의 모두 地方官署에서 彫印된 점 그리고 地方官署중 東京官이 일찍이 靖宗 때부터 經史를 刊行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初刊本도 이곳에서 開板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⁹⁶⁾ 그리고 史書類중에는 吳兢 撰의 貞觀政要도 그 殘本이 여러 곳에 전래되고 있으나 刊記가 있는 책장을 잃어 開板事項이 未詳이다.

醫書分野에는 西京의 留守가 高宗 13년(1226) 中央官署에서 勅送해 온 것을 上梓한 新集御醫撮要方이 있고,¹⁹⁷⁾ 佛書分野에는 鷄林(慶州)府가 忠肅王(復位) 3년에 開板한 白花道場發願文略解

188) 李奎報, 前掲書 卷 21 全州牧新彫東坡文集跋尾.

189) ① 閔思平, 及菴集 “送鄭諫之官金海得見字”.

② 李齊賢, 益齋亂藁 卷4 送金海府使 鄭尙書國徑得時字

③ 千惠鳳, 麗刻本 東人之文四六에 대하여, 大東文化研究 14(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81) pp. 129~153.

19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後集 卷21 十二國史重彫序 및 卷25 夢驗記.

191) 上掲書 卷首 所收文集年譜 己未·庚申條.

192) 同書 安克仁題의 “帝王韻紀 在元貞間 勅令鋟梓刊晋州牧官”

193) 同書의 “永樂丁酉 五月既望……李輕跋” 參照.

194) 金富軾, 三國史記 卷末 金居斗跋 參照.

195) ① 誠庵文庫典籍目錄 p. 61.

② 國寶 12 書藝·典籍 p. 149, 279.

③ 文化財大觀 8, 寶物 6, p. 159, 252.

196) 千惠鳳, 새로 발견된 古板本 三國史記에 대하여, 三國史記論文集 1(白山學會, 1985) P. 137~194.

197) 李奎報, 前掲書 卷21 新集御醫撮要方序.

와 南原府가 恭愍王 12년(1363)에 板刻한 金剛經이 있다. 앞의 것은 신라 義湘의 著述로서 총 10板的 經板중 7板이 아직도 海印寺의 東쪽 經板庫에 간직되고 있다.¹⁹⁸⁾ 뒤의 것은 誠庵珍藏이며, 上段에는 本文에 대한 諸家の 見解중 중요한 것을 그림으로 묘사 판각하고, 下段에는 本文을 수록한 보기도문 귀중한 版畫佛書이다.(圖 7) 권말에는 “至正二十三年癸卯(1363) 八月 日 南原開板”의 刊記에 이어 書員인 信之, 畫員인 法戒, 刻手인 信明 法空이 표시되고 끝으로 奉常大夫知南原府事 薛師德, 判官 兼 勸農使 金英起가 새겨지고 있다. 地方的 彫板術 및 高麗의 佛畫板刻術 연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¹⁹⁹⁾ 字書分野에는 羅州牧에서 刊行한 龍龜手鏡이 알려지고 있다. 이 책의 卷第4 끝에 “羅州牧官彫板 四卷 入九十三丈”에 이어 “司錄掌書記借良醞令 權得齡”이 새겨지고 있어 開板處는 알 수 있으나, 刊年末詳이 못내 아쉽다. 板式으로 보아 12~13世紀의 刊行인 듯하다.²⁰⁰⁾ 이 책은 中國에서 일찍이 逸失되고 南宋 때 龍龜手鑑으로 改題 流通되어 왔으니 羅州牧의 鑿刻板은 原形을 지닌 孤本인 점에서 注目케 한다.

위에서 살펴본 高麗官板의 特徵과 性格을 간추려 보면, 첫째, 官板本은 科擧制度가 실시됨에 따라 儒敎를 바탕으로 한 文治에서 棟樑이 되고자 뜻을 품은 이들의 科試와 勉學에 긴요한 책의 印刷 供給이 필요한데 비롯하여 발전했음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 官板이 약간의 佛書를 제외하고 주로 經書·儒書·史書·詩文集·醫卜書·字書인 점에서 科試와 勉學을 위한 印刷임이 여실히 뒷받침된다.

둘째, 高麗官板은 中央官署에서 本文을 校勘하거나 필요한 책을 訪搜 또는 選定하거나 編次하였을 뿐, 오로지 地方官署에 下命 또는 勸獎하여 開板 進上케 하고 그 册板을 秘閣 書籍鋪(店)가 관리하면서 印刷하여 널리 流通시켰음을 또한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官板印刷政策은 地方官署의 彫板術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한편 한 나라의 印書政策的 視角에서는 受動的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음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이와같은 단점이 마침내 書籍鋪에서 鑄字印刷을 창안하여 中央官署로 하여금 一國의 印書政策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였음은 또한 크게 注目하여야 할 사실이 될 것이다.

셋째, 高麗官板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地方官署에 下命 또는 勸獎하여 刊行하였기 때문에 그 彫板印刷術이 寺刹板에 미치지 못하고 대체로 조잡함이 麗刻官板의 性格이라 하겠다. 中國에서 수입된 것은 거의 그대로 번각수용하였고, 우리나라의 著述을 獨自적으로 刻印한 것이라 하더라도 彫板技法이 亞流로 떨어진다고 하겠다.

198) ① 朴奉石(和山博重). 伽倻山海印寺經板について(上) 複製物 pp.95~96.

② 崔凡述, 海印寺寺刊鑿板目錄, 東方學志 11號 p.37.

③ 大屋德城, 朝鮮海印寺經板攷, 東洋學報15-3(大正 15) P.327.

199) ① 國寶 12 書藝·典籍 p.134, 276.

② 文化財大觀 8, 寶物 6, pp.140~141, 244.

200) ① 上揭書, p.74, 222.

② 國寶 12, 書藝·典籍, p.129, 206.

Ⅷ. 私家板

私家板은 個人이 自費로 刊印하여 대가 또는 비용을 받지 않고 퍼낸 책을 말하며, 고려조에는 佛書와 文集類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려조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佛敎를 國敎로 삼고 신봉해 왔기 때문에 佛書의 私家板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寺刹板이라면 특정 寺刹의 住持와 스님들이 緣化主 또는 勸善主가 되어 여러 信徒들에게서 施主를 받아 寺刹名義로 刊行해 내는 것이지만, 私家板은 특정 寺刹과 관계 없이 財力이 있는 好佛者 또는 信者와 個人이 혼자 또는 몇 사람이 공동으로 出資 刊行하여 퍼낸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私家板을 새긴 장소가 설령 어느 寺刹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刊記 또는 印記에 그 寺刹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詩文集의 私家板은 著者의 子孫·後孫·親知·門下生들이 出資 刊行하여 퍼낸 것을 말한다. 그런데 詩文集은 近親·姻戚·親知 門人들이 地方官으로 부임할 때 公資 또는 私財로 이루어졌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公資로 이루어진 것은 公式인 刊行이기 때문에 刊記에 그 官署名이 표시되고 있지만, 私財 또는 약간의 行下를 지불하고 이루어진 경우는 官署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性格은 私家板에 해당한다.

고려 私家板 佛書는 그 傳本을 조사해 보면 두가지 종류로 가름된다. 그 하나는 武人政府의 首腦者가 자기 자신의 身邊保護와 壽福無疆 그리고 異變不發을 직접 발원하거나 親姻戚·部下의 武將·高官들이 그를 위해 발원하여 私財로 刊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好佛者 또는 단독한 信者 個人이 혼자 또는 몇이 공동으로 出資하여 刊行한 것이 된다. 앞의 것중 武擅首腦者 자신이 刊行한 것에 대하여는 江華武人政府를 이끌어 온 第一人者 崔怡(舊名 瑀)가 손수 발원하여 高宗 24년(1237)에 開板한 大字本 金剛經²⁰¹ 그리고 자신이 직접 比丘 四一에게 명하여 同王 27년(1240)에 刊行케 한 法華經²⁰²이 될 것이다. 親姻戚·部下의 武將·高官들이 武擅首腦者를 위해 刊行한 것에 대하여는 崔氏武擅政治의 토대를 구축한 崔忠獻과 그의 아들 瑀·珣 三父子의 護身을 위해 13世紀 初에 刊行한 携帶用 小字本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을²⁰³ 비롯하여 崔怡의 妻男인 鄭晏(奮)이 妹夫의 壽福을 빌기 위해 高宗 23년(1236)에 開板한 法華經,²⁰⁴ 同王 32년(1245)에 板刻한 金剛經,²⁰⁵ 同王 33년(1246)에 鏤板한 預修十王經²⁰⁶ 등이라든가, 東北面兵馬副使神虎衛保勝將軍 兼 尙書吏部侍郎 李某가 晉陽公의 壽福無疆을 위해 同王 28년(1241)에 上梓한 長壽滅罪經등을 들 수 있다.

201) 國寶 206호 海印寺高麗刻本중 金剛經의 高宗 24年 丁酉(1237) 崔瑀發願開板.

202) 同書 卷末의 “時上章困敦(庚子, 1240) 祥月 下旬謹誌 晉陽公崔怡”

203) 同書 卷末의 發願記.

204) 國寶 206호 海印寺高麗刻板중 法華經의 丙申(1236) 鄭奮刊.

205) 上揭板중 金剛經의 乙巳(1245) 優婆塞 鄭晏板刻.

206) 上揭板중 預修十王生七經의 丙午(1246) 鄭晏鏤板印施.

뒤 것에 대한 事例는 비교적 여러 종이 전래되고 있다. 忠烈王 12년(1286) 成敏의 弟子인 早勤이 李希呂와 함께 발원하여 스스로 板木을 만들어 찍어 낸 小字本 法華經을²⁰⁷⁾ 비롯하여 同王 14년(1288)에 齋色이 홀로 새겨 낸 法華經이라든가,²⁰⁸⁾ 好佛者인 姜金剛이 忠宣王 3년(1311)에 각각한 細小字本 金剛經을 입수하고 이에 梵字佛頂心陀羅尼를 施財 追刻하여 忠肅王 復位 8년(1339)에 刻印한 袖珍經을(圖 9) 먼저 들 수 있다.²⁰⁹⁾ 恭愍王 1년(1352)에는 中郎將 南宮伯의 施財에 의하여 法玄이 손수 長壽滅罪經을 刊行하였고,(圖 8) 이 經을 다시 禡王 4년(1378)에 法弘과 金臣柱의 施財로 重刊한 것은²¹⁰⁾ 모두 私家板에 해당한다. 禡王以後 새긴 私家板 佛書는 비교적 여러 종이 전래되고 있다. 禡王初期 以前에 好佛學者 圓齋 鄭公權(?~1382)이 印施한 圓覺類解를 위시하여²¹¹⁾ 同王 4년(1378) 好佛信者 韓蔽과 光州郡夫人 金氏의 施財 그리고 上黨郡夫人 韓氏와 桓浩의 同願으로 刊行된 父母恩重經이라든가,²¹²⁾ 同王 5년(1379) 惠勤의 文稿를 그의 侍者가 엮고 弟子들의 施財에 의해 刊行된 懶翁和尚語錄이라든가,²¹³⁾ 同王 10년(1384) 志峯 志道の 勸善에 의해 金氏가 施財하여 重刊한 佛祖三經이라든가,²¹⁴⁾ 同王 12년(1386) 姜金剛이 燕京에서 刊行한 것을 入手하여 禮安君禹公이 번각하다 未遂함에 이를 聖庵師가 완성시킨 文殊師利菩薩最上戒經이라든가,²¹⁵⁾ 同王 13년(1387) 志淡 覺全이 自費로 自刻한 大慧書²¹⁵⁾ 그리고 恭讓王元年(1389) 無學大師 自超가 重刊해낸 藏乘法數²¹⁷⁾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私家板 佛書는 施主에 의해 寺利이 刊行한 佛書와는 그 性格이 판이하게 다르며, 佛教를 國教로 삼았던 高麗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自費負擔의 私家板으로서 그 板刻이 대체로 優雅精巧한 것이 그 특징이다.

高麗 때에 私家板 詩文集으로서 元宗 元年(1260) 刊行의 李仁老 撰의 銀臺後集 4권과 破閑集 3권이 著者의 아들 世黃의 私費로 募工開板된 것이 앞선 기록으로 나타난다.²¹⁸⁾ 그 다음에는 恭愍王 때의 私家板 詩文集이 여러 종 나타나고 있다. 恭愍王 12년(1363)에는 李齊賢의 益齋亂藁가 季子인 彰路와 長孫인 寶林에 의해 수집 開板되고,²¹⁹⁾ 同王 13년(1364)에는 李穀의 稼亭集을 嗣子인 李穡이 妹夫 朴尙衷으로 하여금 上梓케 하였다.²²⁰⁾ 그리고 同王 19년(1370)에는 近思錄을 李仁敏이 晉州牧使로 부임할 때 朴尙衷에게서 얻어 가지고 가서 私的으로 刊行하고 “星州李氏于 晉陽”의 牌記를 표시하였으며,²²¹⁾ 또한 그해에 閔思平의 門人 李端은 慶尙按察使로 부임하였을

207) 同書 卷末의 “至元二十三年丙戌(1286) 五月日道人成敏誌”.

208) 同書 卷末의 “至元二十五年 戊子(1288) 七月日 僧齋色刻板”.

209) 同書의 “時至大四年(1311) 五月日誌” 및 “至元 五年(1339) 二月日誌 施主晉城君 姜金剛”.

210) 同書 卷末의 “戊午(1378) 五月 日 重刻 施主 比丘法弘 金臣柱”.

211) 同書 匡郭欄外의 “圓齋鄭公權印施”.

212) 同書 卷末의 “戊午(1378) 五月日誌”.

213) 同書의 “蒼龍己未(1379) 八月 李穡序”.

214) 同書 卷末의 “靑龍甲子(1379) 十月 日 李穡跋”.

215) 同書 卷末의 “洪武 十九年(1386)夏 五月 李穡跋”.

216) 同書 卷末의 “洪武二十年丁卯(1387) 十月日 李穡跋”.

217) 同書 卷末의 “蒼龍己巳(1389) 九月 日 李穡跋”.

218) 破閑集 卷首의 “庚申(1260) 三月日 薛子閣門祇候世黃謹誌”.

219) 益齋亂藁 卷首의 “至正二十二年(1363) 正月初吉 李穡序”.

220) 同書 卷末의 “至正甲辰(1364) 五月 日 初吉 尹澤謹誌”.

221) 同書 第14卷 第15張 卷末의 “星山李氏刊于晉陽” 및 卷末의 “庚戌(1370) 己丑朔星山魯叔謹識”.

때 그 곳에서 스승의 著述인 及菴先生詩集을 私費로 刊行하였다.²²²⁾ 앞의 近思錄은 元板의 번각이며, 뒤의 及菴詩集은 5卷 1冊(18장결락)이 誠庵藏書에서 발견된 귀중한 獨自의 板本이다. 恭愍王 21년(1372)에는 僖孫의 近思齋逸藁가 그의 子孫들에 의해 私財로 入梓되고,²²³⁾ 禡王 2년(1376)에는 仲孚 鄭誦(1309~1346)의 雪谷詩藁가 그의 令嗣 公權[初名:樞]에 의해 수집 刊行되었으나²²⁴⁾ 私家板인 까닭에 새김이 粗拙하고 또 後刷로 인해 글자에 마멸이 생겨 印刷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麗刻本이 워낙 罕傳되고 있어 그 모두가 귀중한 文化遺産의 價値를 지니고 있으므로 保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IX. 結 論

위에서 高麗 典籍板本의 발달과정을 麗初의 寶篋印經, 國刊板藏經, 寺利板, 官板, 私家板의 차례로 고찰 하였다. 이를 高麗佛敎美術史의 視角에서 마무리하여 結論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麗初의 總持寺板 寶篋印經은 羅代의 寫經體를 승습 歐體의 굳센 方筆에 유려한 圓筆을 곁들인 書法으로 발전시킨 글자로 淨書·精刻했음을 形態書誌의인 면에서 고찰하였다. 刊經納塔의 供養佛事는 吳越國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開板은 獨自의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板本이 우리보다 앞서 刊行한 吳越板보다 월등 精巧하고 本文에 誤脫이 없으며 變相圖의 構圖가 실감있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 變相圖의 上梓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板畵가 되는 점에서 특히 注目하게 할 것이다.

初彫大藏經은 北宋의 開寶勅板大藏經·契丹大藏經·宋朝大藏經·國內傳本을 두루 수용하여 當時의 漢譯正藏으로서 가장 包括的이며, 그 體裁 또는 板式은 開寶勅板을 따랐으나 그것을 그대로 翻刻한 것이 아니고 板刻用의 바탕책을 마련, 精刻한 것임을 밝혀서 北宋本의 覆刻完成說에 비판을 가하였다. 그것은 宋帝의 避諱缺畫, 秘藏詮의 板畵, 每行 17字의 契丹本 및 國內 傳本과의 比較考察에 근거한 것이다. 그 중 특히 秘藏詮 卷第13 苦行修道의 場面은 우리나라 美術의 傳統의 特徵을 나타내 주는 獨自의 板畵가 됨을 究明하였다.

續藏經은 東洋學問僧들의 章疏를 우리가 최초로 集大成 한 점에서 그 意義가 지대할 뿐 아니라, 彫板術에 있어서 새로 板刻用 淨書本을 마련하여 本文을 철저히 校勘한 다음, 精刻해 낸 獨自의 板本인 점에서 麗刻本의 白眉라고 평가하였다.

再彫大藏經은 初彫本을 바탕으로 北宋本 契丹本과 對校하고 또 여러 釋敎錄을 參用하여 本文을

222) 同書 “庚戌(1370) 春分前五日 李樞跋”.

223) ① 東文選 卷 103跋 僖長壽. 近思齋逸藁跋.

② 上揭書, 卷86 李樞, 近思齋藁後序.

③ 上揭書, 卷102 李樞, 近思齋逸藁跋.

224) ① 同書의 “洪武丙辰(1376) 正月日 李邦翰跋”.

② 東文選 卷 85 雪谷詩序.

③ 國寶 12 書藝·典籍 p.139, 277.

④ 文化財大觀 8 寶物 6 p.150, 249.

철저하게 校訂한 다음, 번각하였기 때문에 彫板術은 初彫大藏經에 비해 떨어지지만, 本文만은 東洋의 어느 歷代大藏經보다 優秀함을 논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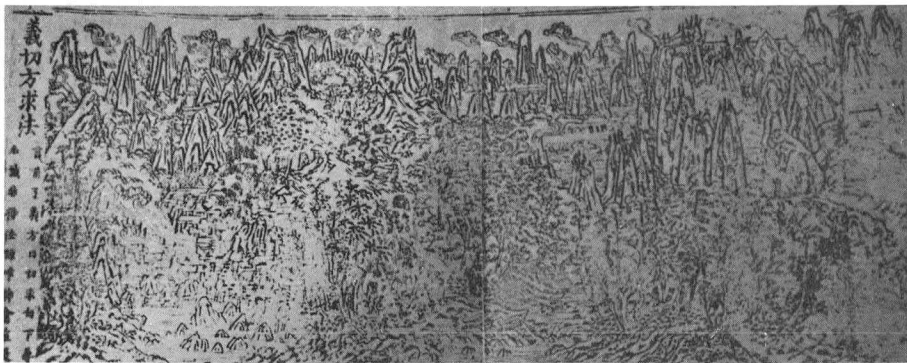
寺刹板은 國初부터 末期에 이르기까지 板刻技法과 字體開發의 면으로 主導的인 位置에서 高麗印刷術의 發達에 크게 寄與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그 중 특히 周本八十華嚴經의 變相圖와 晉本六十華嚴經 變相圖의 殘缺板 그리고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大型板画를 비롯한 金剛經·法華經·華嚴經疏의 變相圖는 高麗佛教美術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官板은 科學와 學問을 위한 教育이 필요한데서 시작, 經學을 포함한 儒學書 詩文學·史學·醫卜學·字學 關係資料를 彫印해서 學問發達에 기여한 과정을 板本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彫板術에 있어서는 地方官署가 거의 專担하였기 때문에 板刻技法이 대체로 亞流로 떨어짐이 그 性格의 일면이라 하겠다.

私家板은 주로 佛書와 文集類에서 발달하였으며, 그 중 文集類는 板刻이 조잡한 편이나 佛書類는 政治權力者와 관련되거나 好佛者들이 開板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優雅精巧함을 傳存의 板本實例에 의거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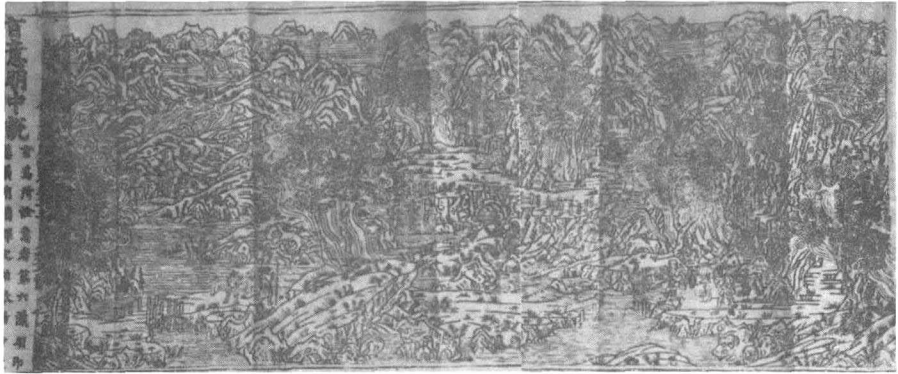
〈圖 1〉 高麗穆宗 10년(1007) 刊行的 寶篋印陀羅尼經 日本東京博物館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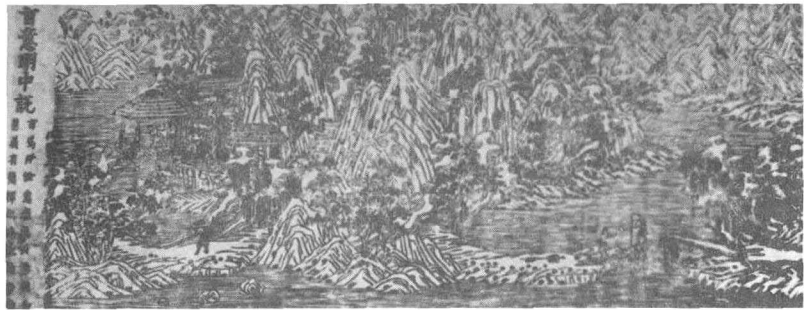
〈圖 2〉 高麗初彫板本 日本南禪寺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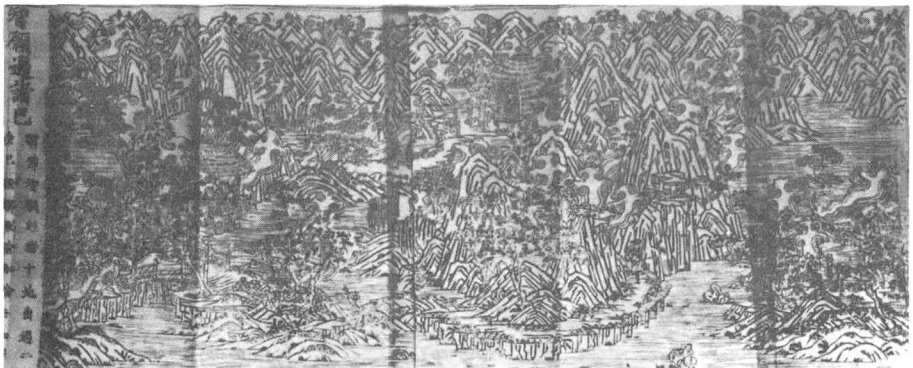
北宋 開寶勅板本 美國하바드대학 포그미술박물관장



〈圖 3〉 高麗初彫板本 日本南禪寺藏



北宋開寶勅板本 美國하바드대학 포그미술박물관장



〈圖 4〉 高麗初彫板本 日本 南禪寺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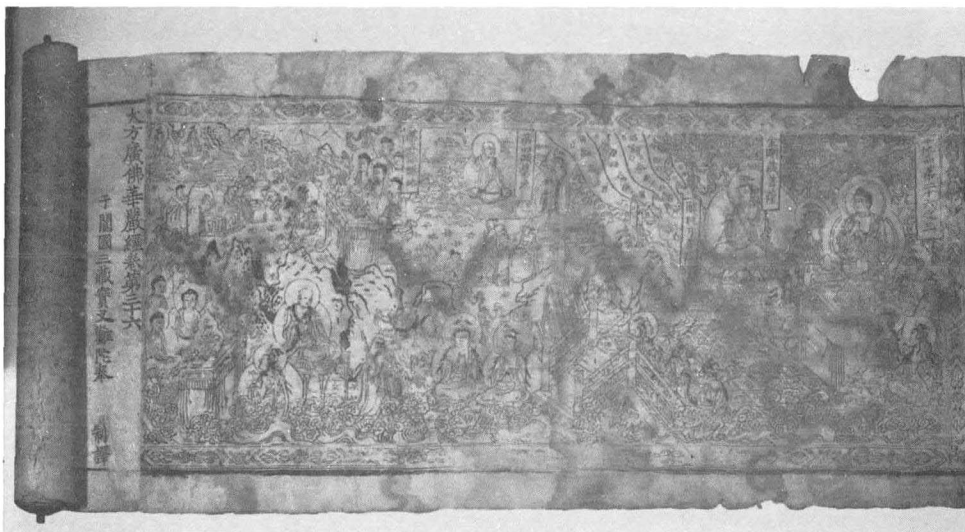
北宋 開寶勅板本 美國하바드대학 포그미술박물관장



〈圖 5〉 海印寺高麗經板



〈圖 5〉 大方廣佛華嚴經 卷第15 晋本變相圖 海印寺藏



〈圖 6〉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第 36 變相圖 誠庵古書박물관장



〈圖 7〉 恭愍王 12年(1363) 刊行的 金剛般若波羅蜜經 誠庵古書박물관장



〈圖 8〉 恭愍王 1년(1352) 刊行的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金廣洙藏



〈圖 9〉 忠肅王復位 8年(1339) 刊行的 細小字金剛般若波羅蜜經 李炳麟藏